

碩 士 學 位 論 文

海戰史를 통해본 大陸國家와 海洋國家의
海洋戰略과 潛水艦 運用事例 研究

(A Study on Maritime Strategies of Continental and Oceanic
Countries, and the Applied Operation Cases of Submarines through
Naval Warfare History)

國 防 大 學 校
安全保障大學院 軍事戰略專攻
金 泰 煥

海戰史를 통해본 大陸國家와 海洋國家의
海洋戰略과 潛水艦 運用事例 研究

指導教授 金 泰 俊

이 論文을 碩士 學位論文으로 提出함.

2002년 12월 일

國 防 大 學 校
安全保障大學院 軍事戰略專攻
金 泰 煥

金泰煥의 碩士學位論文을 認准함.

指導教授 金泰俊 (印)

審査委員 張文錫 (印)

審査委員 文章烈 (印)

2002년 12월 일

國 防 大 學 校

감사의 글

선수과목 수업을 받을 때가 불과 몇 일전 같은데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푸르름의 향기를 지닌 봄을 지나 여름의 타는 더위를 경험하고 다시 찾아오는 가을에서 노란 은행잎을 바라 볼 때, 나무 가지 끝에 메 달린 작은 마지막 잎새 마저 떨어지면 이라는.....아쉬운 여운이 마음에 동심원을 그리듯 둥그스레 남는다. 2년이라는 기간 동안 국방대학교에서의 생활에서 많은 것을 느꼈고, 또 적잖은 것을 경험했다. 앞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이런 경험한 사실이 좋은 촉진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한편의 형편없는 논문을 쓰기도 마음으로는 부끄럽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뭔가를 해냈다는 작은 우쭐거리는 기분도 생기기도 했다. 형편없는 이 논문이 나오기까지 주위에서 계신 분들이 너무나도 많은 격려를 해주셨고 지도를 아끼시지 않으셨다. 논문지도에 열과 성을 다하신 김 태준 지도교수님과 장문석 교수님, 그리고 문장렬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내가 힘들고 지칠 때마다 사랑하는 가족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희생이 정말 큰 동인이 되었다. 부모님을 비롯한 장인어른, 장모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특히 사랑하는 아내와 딸에게 이 논문을 바친다. 또한 국방대학교에서 처음 만난 모군 선·후배님과 육·공군 선·동기 여러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선배님이자 스승으로서 따뜻한 가르침을 주신 훈육관님께 이 글을 빌어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要 約

본 연구는 대륙국가와 해양국가의 구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해당국가의 해양전략은 어떠한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 또한 잠수함은 어떻게 운용되었는가를 고찰해보는 것이 목적이다. 그리고 대륙국가와 해양국가의 해양전략을 고찰한 다음 한반도에 적용 가능한 해양전략은 과연 무엇이며, 또한 잠수함은 어떤 해양전략에 따라 운용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해답까지 구하고자 했다.

연구의 범위는 해양과 접촉하고 있으나 대륙적인 군사사상을 가진 국가와 해양을 주무대로 활동한 국가로 한정하고 시기적으로 제1,2차 세계대전기간, 포클랜드전쟁기간으로 제한하였다.

먼저 대륙국가와 해양국가의 구분은 해당 국가의 지리적인 위치, 타국과의 관계, 자원의존 정도, 군사사상적인 배경을 복합적으로 고려했다. 일반적으로 해양국가라 함은 2면 이상 다면 해양적 위치(multi side nation)의 국가로서 해외자원의존도가 높고 바다를 통한 무역에 국가의 사활을 걸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해양국가들은 해전의 비율이 높은 국가들로서 군사사상적인 측면에서 해군 중심적인 국가를 말한다. 그 대표국가로는 영국, 일본, 제2차 세계대전기 대서양전역에서 미국을 들 수 있다.

대륙국가 역시 일반적으로 2면 이상 육지국경선을 가진 국가로서 국경무역이 중심을 이루고 국토는 상대적으로 비옥하고 자립경제가 가능한 국가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이들 국가들은 지상군 위주의 군사사상을 지니고 있고 육전의 비율이 높으며 대표국가로는 독일, 아르헨티나가 이에 해당된다.

본 연구에서는 협의의 해양전략 개념을 사용하고 해군전략과 동일한 의미를 지닌 것으로 보았다. 일반적으로 대륙국가의 해양전략 개념은 해양거부(sea

denial)가 중심을 이루는 전략을 말하며, 해양국가의 해양전략은 해상통제(sea control)가 골자가 되는 전략이다. 따라서 해양국가에서는 해상통제를 달성하기 위해 함대를 공세적으로 운용하였으며 해상통제가 달성된 후 적극적인 세력투사를 감행하려 했다. 그리고 잠수함 역시 함대세력의 구성체로 함대결전용 내지 보조용으로 사용되었다. 이와 같이 해양국가의 해양전략이 공세적이고 적극적인 이유는 적함대가 존재한다는 그 자체가 위협이 된다고 간주하기 때문이다. 이는 사례연구에서도 확인되었다.

대륙국가의 해양전략은 함대보존(Force in Being)과 적의 해양사용을 거부하는 전략으로 해양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세한 함대를 보유하고 있기에 해상결전보다는 기습과 야간작전을 중요시했다. 그리고 통상과피전과 연안방어가 해군의 주임무이며 잠수함은 이때 가장 적절한 무기체계로 간주되었다. 이 또한 사례연구에서 같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한국의 해양전략을 선택하기 전에 먼저 한국의 지·전략적 특성을 살펴보아야 한다. 한국은 다면 해양적 위치의 국가로서 해양으로 접근성이 좋고 심장지역과 멀리 떨어져 있으며, 해외자원의존도가 크다. 그리고 한국은 바다를 이용한 무역에 국가의 사활을 걸고 있고 대륙국가와 해양국가의 세력이 맞닿는 곳에 위치해 있다. 즉 대륙국가와 해양국가의 위협을 동시에 관리해야 할 지·전략적 위치에 놓여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반도국의 입장에서 대륙국가의 해양거부를 해양통제 입장에서 관리할 수 있어야 하며, 해양국가의 해양통제를 거부해야 하는 당위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상반된 전략을 조화롭게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 본 연구자의 제언이다. 그리고 사례연구 결과 재래식 잠수함의 경우 제한된 능력으로 인해 함대결전용으로는 뚜렷한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한국의 재래식 잠수함 역시 제한된 능력으로 해상통제용으로 사용되기보다는 방어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본다.

본 논문은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나름대로 깊이를 가지려 했으며 사례연구부분에 많은 부분을 할애했으나 사실 만족스럽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결론부분에서 한국에 적합한 해양전략 역시 저자는 사례연구에 견주어서 제안하였고 전력규모와 더불어 한국의 해군력건설부분은 이후 후학들의 연구가 더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목 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목적 및 배경	1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3
제3절. 분석의 틀	4
제2장 분석을 위한 이론적 고찰	5
제1절 대륙국가와 해양국가의 구분	5
1. 해양국가	8
2. 대륙국가	10
제2절 대륙국가와 해양국가의 해양전략	12
1. 해양전략의 개념	13
2. 해양국가의 해양전략	14
3. 대륙국가의 해양전략	16

제3절 대륙국가와 해양국가의 잠수함 운용	18
1. 해양국가의 잠수함 운용	19
2. 대륙국가의 잠수함 운용	21
제4절 소결론	22

제3장 해전사를 통해 본 해양전략과 잠수함 운용 사례 연구

24

제1절 제1차 세계대전	24
1. 영국의 해양전략	25
2. 독일의 해양전략	26
3. 해전의 양상	28
4. 잠수함전	32
5. 분석	37

제2절 제2차 세계대전	38
1. 대서양전역	39
(1) 영국의 해양전략	39
(2) 독일의 해양전략	40

(3) 해전의 양상	42
(4) 잠수함전	45
(5) 분석	48
2. 태평양 전역	49
(1) 일본의 해양전략	49
(2) 미국의 해양전략	53
(3) 해전의 양상	55
(4) 잠수함전	58
(5) 분석	62
제3절 포클랜드전쟁	63
1. 영국의 해양전략	64
2. 아르헨티나의 해양전략	64
3. 전쟁의 경과	65
4. 잠수함전	68
5. 분석	69
제4절 소결론	71

제4장 한국의 해양전략과 잠수함운용	73
제1절 한국의 지·전략적 특성	73
제2절 한국의 해양전략	75
1. 대륙국가의 해양전략과 연관성	75
2. 해양국가의 해양전략과 연관성	76
3. 양 해양전략의 수용 가능성	78
4. 한국의 해양전략의 선택	79
제3절 한국의 잠수함 운용	82
제4절 소결론	83
제 5 장 결 론	84
참고문헌	88

표 목차

[표3-1]	제1차 세계대전 직전 영·독 함대 세력비교	28
[표3-2]	통상파괴전에 따른 독일 잠수함의 손실도	34
[표3-3]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영·독 세력비교	42
[표3-4]	군축회담 직후(1922년) 양측 세력비교	50
[표3-5]	개전 전 일본의 해외자원의존도	52
[표3-6]	태평양전쟁중 미·일 함정전력 비교	54
[표3-7]	영국과 아르헨티나 양측의 참가세력	67

그림 목차

[그림1-1]	분석의 틀	5
[그림3-1]	통상파괴도	35
[그림3-2]	독일잠수함에 의한 월별 연합국 상선 격침 톤 수	47

第 1 章 序 論

第 1 節 研究目的 및 背景

역사상 존재했던 대다수의 국가들은 각국의 전략적 상황과 문화적인 특성, 그리고 지리적 환경, 경제적인 여건, 또는 정치적(정책적) 환경 등에 의해서 대륙적인 경향 또는 해양적인 성향을 띠어왔다.¹⁾

일반적으로 우리는 해양적, 또는 대륙적 국가를 그 국가의 현재 위치에 따라 구분한다. 그러나 지리적인 위치만으로 국가를 구분하는 것처럼 국가의 분류가 단순하지 않다. 그리고 대륙국가라 해서 역사적으로 지상전력만 보유했던 것도 아니며, 해양국가라고 해서 반드시 해양력만을 고수한 것도 아니었다. 사실 해양세력들은 지상전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을 모색했고 대륙세력들은 해양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여 왔다. 양측과 동맹국들간의 세계사적인 주요 분쟁을 살펴보면, 양측은 대륙적인 요소와 해양적인 요소를 모두 포함하는 혼합된 전략을 추구하여 왔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환언하면 시간과 장소에 따라 대륙적 또는 해양적 특성이 달리 나타났었다.

그리고 어떤 국가가 더 대륙국가적인가 또는 해양국가적인가라는 판단에 절대적인 기준은 존재하지 않으며 상대적인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지·전략적인 환경이 상이한 국가들의 해양에 관한 관점은 각기 다르기 마련이며 발전시키는 해양전략의 개념도 물론 상이해진다. 해양전략은 한 국가가 처해 있는 환경적인 요인과 현실에 확고하게 기반을 둔 사고에서 비롯되고, 납득할 수 있고 지역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철학적 기반을 지녀야 하며 실제 적합한

1) Colin S. Gray, *The Leverage of Sea Power: The Strategic Advantage of Navies in War* (London : Simon & Schuster, 1992), 임인수· 정호섭 공역, 『역사를 전환시킨 해양력』 (서울 : 해양전략연구소, 1999), p. 21.

개념으로 마련되어야 한다.²⁾ 실제로 해양국가와 대륙국가간의 분쟁을 결정짓게 하는 것은 어느 쪽이 상대편의 상황적인 이점을 더 잘 극복하고 본연의 환경적인 특수성과 비교우위의 이점을 살려 승리의 요인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³⁾

인간이 수중항해에 대한 염원을 갖기 시작한 이래로 미국인 부슈넬(Bushnell)이 1776년에 잠수정의 원시 모델을 개발하였으며, 1862년에 미국의 남북전쟁 기간동안 남군에 의해서 잠수정이 처음으로 운용되었다. 그 이후 해양국가와 대륙국은 각기 잠수함 연구 개발에 박차를 가하여 제1차 세계대전 직전인 1900년경에 잠항하여 상대방을 공격할 수 있는 수준 정도까지 발전하게 되었다.⁴⁾ 잠수함은 수중에서 활동하는 특유의 은밀성으로 여러 가지 임무를 수행했으며, 전장에 면에서 입체로 확대시킨 하나의 무기체계이기도 하다. 이런 효용성으로 인해 잠수함은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국가들간에 널리 사용되어 왔으며, 그 운용개념은 각국의 지리적, 전략적 환경에 따라 상이했다는 것은 전사를 통해서 잘 알 수 있다. 환언하면 일방이 타방에 비해 막강한 잠수함의 전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운용상 또는 해양전략의 테두리에서 달리 운용되었던 것이다. 즉 대륙국가와 해양국가의 해양전략은 위에서 언급한 대로 상이하게 발전되어 왔으며, 잠수함의 운용 역시 같을 수가 없었다.

이런 배경하에서 본 연구는 네 가지의 연구목적을 가지고 있다.

첫째, 대륙국가와 해양국가의 구분은 어떻게 해야 하며, 그 대표 국가는 어느 국가이고,

둘째, 대륙국가와 해양국가의 해양전략은 무엇이며, 또한 어떠한 차이가 있으

2) J. C. Wylie, *Military Strategy: A General Theory of Power Control* (New Brunswick : Rutgers University, 1967), p. 108.

3) 상계서, p. 13.

4) Christopher Chant, *The History of Warships* (Edison New Jersey : Chartwell Books, Inc., 2000), pp. 364-371. ; Bernard and Fawn M. Brodie, *From Crossbow to H-Bomb* (Bloomington, Indiana : Indiana University Press, 1973), pp. 116-118.

며,

셋째, 해전사를 통해서 각 해양국가와 대륙국가는 어떤 해양전략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잠수함 운용은 어떠한지,

넷째, 한반도의 지·전략적 특성과 적용 가능한 해양전략은 무엇이며, 또한 잠수함은 어떻게 운용되어야 하는가 등을 파악하는 것이다.

第 2 節 研究의 範圍 및 方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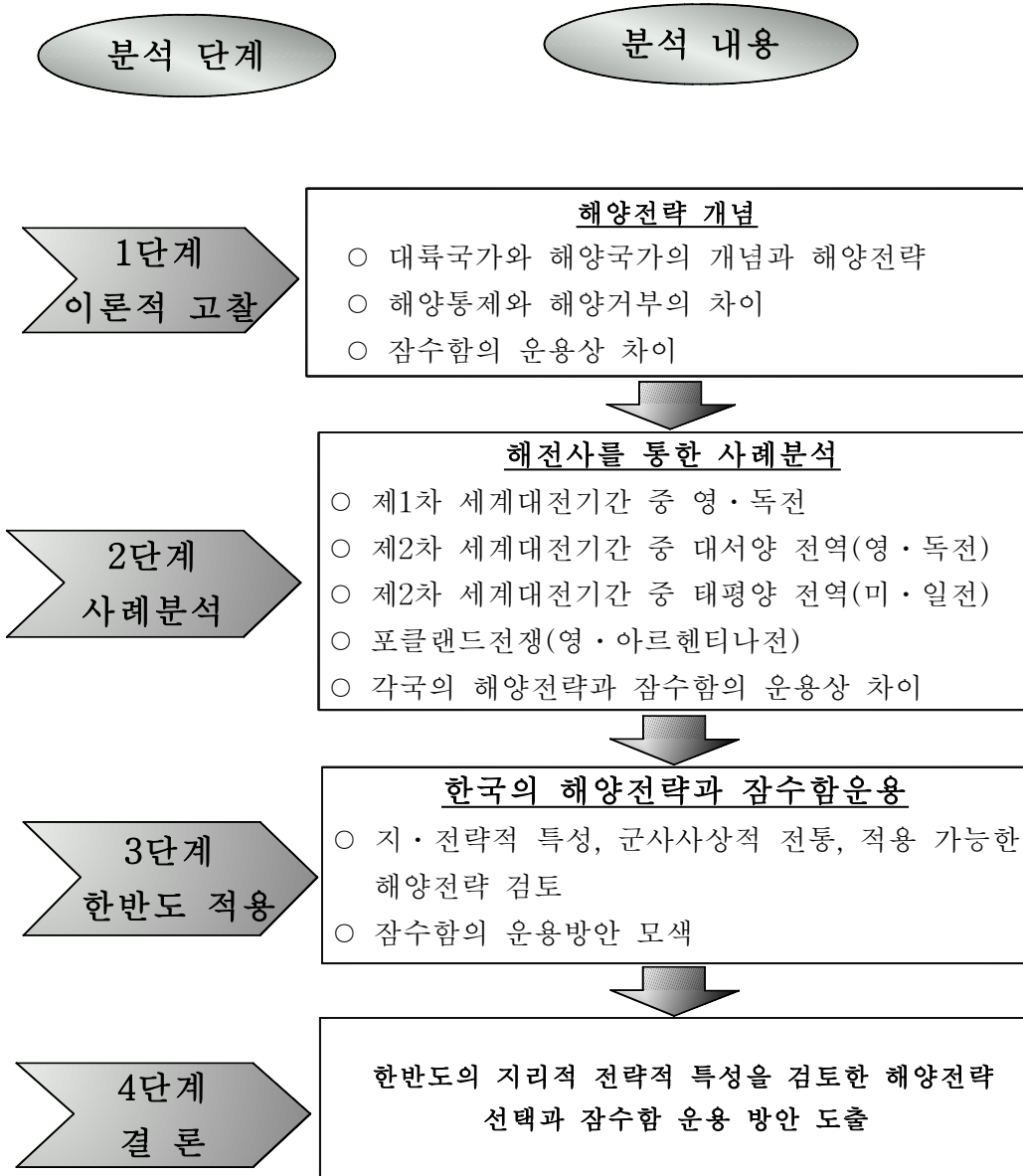
본 연구의 범위는 해양과 접촉하고 있으나 대륙중심적 군사사상을 가진 국가와 해양을 주무대로 활동한 해양중심적인 국가로 그 범위를 한정하고, 잠수함을 실제 운용한 국가들을 중심으로 하고자 한다. 따라서 완전한 대륙적인 국가 즉 사면이 육지로 둘러싸인 대륙국가와 실제 사면이 바다를 접하고 있더라도 직접으로 전쟁에 참가하지 않은 국가는 범위 상 제외하고 주요 해전을 통해서 나타난 국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대륙국가와 해양국가의 개념을 먼저 정의하고, 그 다음 각국은 어떠한 해양전략을 수립하였는가를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즉, 대륙국가와 해양국가의 대립이 극에 달했던 시대인 제1차대전, 2차대전, 포클랜드전쟁시에 각 국의 해양전략과 잠수함의 운용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할 것이다. 따라서 시기적으로는 제1차대전에서 제2차대전기, 그리고 포클랜드전쟁기로 한정하고 해전이 주로 치러졌던 기간에 국한하고자 한다.

그리고 한반도의 지·전략적인 특성을 살펴보고 그 분석을 통해서 해양전략의 수립방향과 잠수함의 운용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연구의 방법은 문헌을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제3절 분석의 틀

<그림 1-1 분석의 틀>



第 2 章 分析을 위한 理論的 考察

第 1 節 海洋國家와 大陸國家의 區分

해양국가와 대륙국가의 구분을 한마디로 표현하기는 용이하지 않으며 그런 개념설정의 기준 및 어느 국가가 이런 구분에 속하는지도 분명히 언급되지 않는 실정이다. 해양국가와 대륙국가의 명확한 분류기준은 없지만 해양국가의 대표 격인 영국을 해양국가라 하고 독일을 대륙국가라 하면 무엇인가 그 뜻하는 바를 대략적으로는 알 수 있다.⁵⁾

일반적으로 해양국가와 대륙국가의 구분은 지리적인 위치로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할 수 있으나 단순히 이것만으로 각 개념을 정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국가의 지리적인 위치, 자원 의존도, 군사사상적인 면과 타국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상대적인 위치 등을 모두 고려하여야만 어느 정도 구분이 정확하다고 하겠다.

우선적으로 지리적인 위치에 대해서 살펴보면, 국가의 물리적 위치란 대륙국가와 해양국가로 분류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이다.⁶⁾ 부연하면 국가는 자국의 지리적 위치에 따라 방위의 우선 순위를 해양 쪽에 두느냐 또는 지상 쪽에 두느냐를 결정하게 되고 지리에 따른 전략적인 의미를 달리 해석하며, 발전시키는 군사사상도 달리한다. 따라서 한 나라의 위치는 국력의 강약과 기술, 산업력 수준, 군사사상 등에 따라 그 의미, 기능, 가치가 크게 달라지는 경향을 가진다.⁷⁾ 환언하면 해양 또는 대륙국가로서의 성향은 위치와 더불어 여

5) 육군본부, 『대륙국가와 해양국가의 전략』 (서울 : 육군본부, 1977), p. 11.

6) Mackin Thomas Owens, "In Defense of Classical Geopolitics," *Naval War College Review Autumn(1999)* (New Port R. I. : Naval War College Press, 1999), www.nwc.navy.mil/press/Review/1999/Autumn/art3-a99.html. (검색일자: 2002. 7. 10)

러 가지 고려요소가 결합된 복합적인 것이다.

먼저 단순히 지리학적으로 국가의 위치를 평가하는데 있어 다양한 견해가 있다.⁸⁾ 국가의 위치에 관련하여 학자들은 ①절대적(absolute)으로 또는 상대적(relative)으로 (Pounds, East 및 Prescott) ②수리적, 지리적, 정치적 위치(Spupan)로, ③천문학적, 수륙배치, 관계적 위치로(Valkenburg), ④수리적, 자연적, 관계적 위치, ⑤자연지리적, 정치지리적, 인문지리적, ⑥수리적, 수륙배치상, 타국관계적, 인접성상, 전략적으로 다양하게 파악하고 있다. 상기 관점을 종합적으로 분류해 보면 대체적으로 수륙배치와 타국과의 관계를 공통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가의 위치 구분을 비교적 용이하고 명확하게 하기 위해 수륙배치와 상대적인 관계에 따른 위치로 대륙국가와 해양국가를 구분함이 좋을 듯 하다.

수륙배치상 구분에서는 국가의 위치를 육지, 바다, 반도, 도서 등과 같은 자연지물과의 관계에서 바라보는 것으로 크게 해양적 위치와 대륙적 위치로 나눌 수 있다. 해양적 위치를 먼저 살펴보면 발켄버그는 국가를 바다와 접촉한 면 정도에 따라서 1면 해양적 위치(one-side location), 2면 해양적 위치(two-side location), 3면 해양적 위치(three-side location), 그리고 여러 면에서 접한 위치를 多해양적 위치(multi-side location)로 분류했다. 섬은 해양적 위치의 특수한 형태로 도서적 위치(insular location)로 다르게 분류한다. 그리고 보통 해양국가라함은 영국, 일본 등과 같이 다해양적 위치와 도서적 위치의 국가들이 이에 속한다.⁹⁾

대륙적 위치는 일국의 영토 대부분이 바다와 접촉하지 않고 있을 때 이런 나라의 위치를 대륙적 위치라고 한다. 내륙국가는 대륙국가의 극단적인 위치

7) 임인수·정호섭 역, 『역사를 전환시킨 해양력』, p. 29

8) 임덕순, 『정치지리학원리』 (서울 : 법문사, 1989), pp. 102-103.

9) 상계서, pp. 103-104.

라고 할 수 있으며, 대륙국가는 대체적으로 1면 내지 2면을 해양과 접한 국가가 여기에 속한다. 이런 나라는 대체적으로 바다를 갈구하는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 대표적인 국가가 구소련일 것이다.¹⁰⁾

상대적 위치로 국가를 구분하는 것은 수리적 위치나 수륙배치상의 위치처럼 그 성격이 절대적(absolute)인 것이 아니라, 타국과 관련된 입장을 고려한 관계적인 것이며 그 중요성이나 가치도 시대에 따라서 상대적이며, 위치 자체도 가변적인 것을 의미한다.¹¹⁾ 실제 한 국가가 타국가와 전쟁이라는 극단적인 수단을 이용하여 자국의 의사를 관철하고자 한다면 모든 요건을 상대적으로 고려함은 당연하다. 이런 의미에서 타국과의 관계에서 고려되는 위치를 상대적 위치라고 한다.

한편 자원의존도면에서 대륙국가는 지상에서 생활공간을 확보하여 경제적인 자립(Autarky)을 추구하고 그 부족분을 국경을 통한 무역에 주로 의존하는 반면 해양국가는 적절한 해안선과 양호한 항구부터 확보하며 해상교통로를 중심으로 해양을 통한 무역에 국가의 사활을 건다.¹²⁾

대륙적인가 해양적인가의 구분에 있어서 또 다른 중요한 인자는 한 국가의 군사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대륙국가의 정책입안자들은 국가의 사활적인 이익이 육지에 있다고 생각한 반면 해양국가의 정책입안자들은 국가의 사활적인 이익이 해양과 관련하여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한 나라의 군사사상이란 어느 한 부분만이 반영되어 나타나기는 곤란하며 국가의 지리적인 위치와 타국과의 관계, 자원의 의존정도, 군사적인 전통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해양국가의 군사사상정립에 마한만큼 영향을 준 사람도 없으며 대륙적 해양전략 사상에는 프랑스에서 봄이 일었던 해군신학과의 영향이 지배적이

10) 상계서.

11) 상계서, p. 104.

12) 김현기, 『현대해양전략사상가』 (서울 : 해양전략연구소, 1998), pp. 44-48.

었다.¹³⁾

1. 해양국가

전술한 바와 같이 해양국가를 판단함에 있어 수록배치로 구분해 보면 多해양적 위치와 도서국가들이 대체적으로 해양국가임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러나 한 국가를 단순히 사주가 바다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해양국가라고 판단하는 것은 단순한 견해이다. 영국과 같이 해양국가로서의 군사사상을 발전시키게끔 하는 이유가 사면환해라는 지리적 조건 때문만은 아닌 것이다.

마한은 국토의 위치, 넓이, 인구, 해안선의 형태, 특히 양항의 보유 등을 해양력의 유형적인 요소로 보았다. 그러나 마한은 이런 유형적인 요소만으로 해양국가로 보기는 어렵고 다른 요소가 추가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것은 그 국토에 생계를 영위하는 국민의 성격, 자질, 의욕 등에 깃들여 있는 무형적인 요소를 말한다.¹⁴⁾ 환언하면 바다를 동경하고 바다에서 의식주를 해결하는 국민의 존재 여부에 달려있다. 이런 견지에서 영국은 분명히 해양국가임에 틀림이 없다.

마한이 주장하는 해양력의 무형적인 요소 중 정부의 성격 역시 해양국가의 중요한(Vital Importance) 결정인자이다. 즉 국가조직, 정부의 성장과정, 지향방향, 등이 해양과 관련이 있으며, 이를 지향하는 국가를 해양력을 보유한 해양국가로 보고 해양 중심적인 단일 정책(Single Line)으로¹⁵⁾ 일관한 국가가 그 중심을 구성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조건에 적절히 대입되는 국가는 바로

13) Margaret Tuttle Sprout, "Mahan: Evangelist of Sea Power," Edward Mead Earl, *Makers of Modern Strategy* (Princeton New Jersey :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3), pp. 415-456.

14) 육군본부, 『대륙국가와 해양국가의 전략』, p. 11.

15) Sprout, "Mahan: Evangelist of Sea Power," p. 420.

영국으로, 영국은 여지없이 해양국가이다.

지역을 두고 해양국가의 특징적 제정책 중 하나는 내륙으로의 팽창정책을 들 수 있다.¹⁶⁾ 내륙으로의 팽창욕은 강력한 해양국가에서 현저히 나타난다. 강력한 해군력으로 해양국가는 자국의 영토적 또는 세력권적 성장을 위한 성장 첨단을 확보해야 한다. 내륙을 향한 팽창통로로는 초기에는 하천이나 아니면 내륙침투를 위해 필요한 해상교통로를 포함한 항로가 그 중심이 된다. 과거 신대륙을 발견하기 위한 제국주의 국가 통항로가 가장 그 적절한 예일 것이다.

해양 일변도의 정책을 추구한 영국과 유사한 조건을 가진 국가로 일본을 흔히 거론한다. 그러나 일본은 17세기까지 쇄국을 기치로 봉건적인 대륙적 쇄국 국가로 잔류하기를 원했는데 이와 같이 한 정부의 성격¹⁷⁾에 따라 그 진로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잘 보여준다. 명치유신 이후 일본을 보면 특히 청·일, 러·일 전쟁으로 국가의 위상이 크게 신장되었지만 해양국가에 상응한 군사사상이나 전쟁관은 여전히 미미했다. 오히려 유럽의 대륙적 군사사상이 선행된 이상한 경우라 하겠다.¹⁸⁾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을 준비하고 수행할 때 일본은 자원을 전적으로 해외에 의존함에 따라 해양적 군사사상을 적극 수용하고 단순한 함대보존이 아닌 함대결전 사상을 가지게 되었다.

해양국가를 논함에 있어서 다소 혼란스런 국가가 바로 미국이다. 미국은 지리적으로나 자원 의존도면에서 보면 분명 대륙국가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자립경제가 가능하고 해전이나 육전이 많지 않았던 미국은 마한제독의 영향으로 해양국가로서 군사사상을 추구하고 발전시키어 왔지만 정부의 성격상 외해로

16) 임덕순, 『정치지리학원리』, p. 126.

17) Ratzel은 동일한 국가 내에서도 그 정부의 정책비중에 따라 대륙과 해양으로 전환이 된다고 했다. Friedrich Ratzel, "국가의 위대성의 근원으로서의 바다" 전용 편역, 『지정학과 해양세력 이론』 (서울 : 해양전략연구소, 1999), p. 39.

18) 김현기, 『현대해양전략사상가』, p. 35.

나아가기보다는 대륙적인 고립주의 정책을 견지해 왔다¹⁹⁾. 제2차 세계대전까지 미국은 해양적인 군사사상과 대륙적인 군사사상이 혼재한 형태로²⁰⁾ 발전되었으며, 타국가와의 상대적인 관계에서 해양적 사상과 대륙적 사상을 달리 나타내기도 했다.

종합적으로 해양국가는 다해양적 위치의 국가로, 해양국가로서 필요한 유·무형적인 요건을 유기적으로 가진 국가라 할 수 있다. 이들 해양국가들은 군사 사상적인 측면에서도 해양 중심적이며, 그 대표국가로 제1, 2차 세계대전시 영국과 제2차 대전시 대서양에서의 미국, 태평양에서의 일본을 들 수 있다.

2. 대륙국가

수륙배치형에서 보면 대륙국가는 1면 내지 2면을 해양과 접한 국가가 대다수이며 긴 육지국경선을 가진 국가가 중심을 이룬다. 대륙세력의 우위론을 주장한 맥킨더의 심장지역 이론²¹⁾에 의하면 대륙국가는 유라시아 일대에 위치한 국가로 볼 수 있으며 그 해당국으로는 러시아나 독일 혹은 중국일 수 있다고 암시하였다.²²⁾

맥킨더는 심장지역에는 대하천 유역의 광대하고도 비옥한 토지가 있고 유용한 자원도 많아서 비록 해양과 접촉할 수 있는 여지는 적지만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이곳을 지배하는 것이 바로 유라시아와 아프리카의 지배, 나아가

19) Ronald Andidora, *Iron Admiral : Naval Leadership in Twentieth Century* (Westport C.T : Greenwood Publishing Group, 2000), p. 14.

20) Mike Lawrence Smith, *The Changing Face of Maritime Power* (London : Macmillan Press, 1999), 이원우외 2명 공역, 『해양력의 변화국면』 (대전 : 해군대학, 2000), p. 3.

21) 맥킨더는 심장부 이론에서 “Who rules East Europe commands the Heartland : who rules the Heartland commands the world island: Who rules the World Island commands the World)”라고 주장했다. 임덕순, 『정치지리학원리』, p. 112.

22) 홍종혁, 『정치지리학』 (서울 : 공화출판사, 1968), p. 34.

세계지배의 열쇠가 된다고 주장했다. 즉 대륙국가란 심장지역을 차지하려는 국가 또는 심장지역의 주변에 위치한 국가들이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대륙국가는 해양국가에 필요한 유형적 요소인 긴 해안선, 양항, 해양에 종사하는 국민비율이 낮은 국가로서, 굳이 해양에 의존하지 않더라도 국토가 비옥하여 자립이 가능하고 해상을 통한 무역의존도가 지극히 낮은 국가들이 중심이 된다.

대륙국가의 군사사상을 좌우하는 요인으로는 육지국경선의 길이, 형상, 지세, 국경을 통한 무역 등을 꼽을 수 있고 이들 요소가 지대한 영향을 미쳐 지상전의 비율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대륙국가란 즉 그 군사사상이 해양국가와 현저한 대조를 보이고 전 군사분야에서 차지하는 육전의 비율이 극히 우월한 국가를 말한다.

대륙국가 정부의 두드러진 제정책으로는 해양으로의 축수운동을 들 수 있다. 대륙국가가 자국의 토지를 공해와 연결시키려는 노력은 쉽게 이해될 수 있다.²³⁾ 해양에서 대륙국가의 축수운동이 확대되면 전체 바다를 장악, 지배하려는 의도가 강해진다. 그리하여 그 바다 전체를 마치 자국의 내해나 자국의 호수로 만들려고 한다. 이 같이 어떤 바다를 자기 나라의 내해나 호수로 만들려는 운동을 마레 노스트럼(mare nostrum: 우리 바다)운동이라고 한다. 이런 호수화노력으로 해양국가와 대륙국가의 대립이 찾아지게 되는 것이다.²⁴⁾

지리학적으로 볼 때 대륙국가의 대표격인 국가는 러시아이다. 러시아는 아시아와 유럽대륙에 걸친 국토의 위치를 보더라도 대륙적 국가임에 틀림이 없다. 러시아는 서쪽으로 흑해와 발트해에, 북은 북극해, 동쪽은 태평양과 접하고 있지만 국토의 면적에 비해 해안선의 길이는 매우 짧고 양항을 가지고 있

23) 마한은 이런 이유를 짚 물류비용과 막대한 양을 나르기에는 해양이 훨씬 유리하다고 보았다. Sprout, "Mahan: Evangelist of Sea Power," p. 424.

24) 임덕순, 『정치지리학원리』, p. 126

지 않는 점으로 보아 분명히 대륙국가이다. 러시아의 역사는 과히 바다를 찾기 위해 노력한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러시아와 같은 대륙국가들의 활동을 일종의 축수운동이라고 한다.²⁵⁾

러시아와 더불어 대륙국가의 또 다른 전형은 바로 독일이다. 독일은 국토의 지리적인 위치로 인한 끊임없는 국경침범으로 전화를 입었다. 따라서 독일은 생존을 위한 대륙국가의 군사사상을 견지할 수밖에 없었다. 독일은 대륙중앙의 전략적인 위치로 인해 전쟁을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으며 비옥한 토지와 더불어 교통의 중심지가 되었다. 국경을 통한 지상 무역으로 원활하게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독일의 지리적인 이점도 적으로부터 외침을 언제나 받을 수 있는 단점과 공존하게 되었던 것이다.²⁶⁾

종합적으로 보면 대륙국가는 해양국가로서의 유형적인 요소가 적고, 육지국경선이라든지 국경무역, 국토의 비옥함과 같은 대륙국가적인 물리적인 요소가 강하다. 생존과 더불어 국경을 통한 분쟁이 많은 것이 특징이며, 국력이 강성해질 때는 해양과 관련된 제정책 중 마레노스트럼의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 그리고 대륙국가의 대표국가로서는 러시아, 중국, 독일이 이에 해당된다.

第 2 節 大陸國家와 海洋國家의 海洋戰略

25) 상계서, p. 126.

26) 맥킨더는 제1차세계대전을 한낱 대륙세력(Land Power)과 주변세력(Marginal Power, 해양세력)간의 마찰이 고조화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았고 그 전쟁에서 해양이점도 갖고 있는 대륙적인 독일이 승리했다면, 독일은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을 겸한 국가가 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냉전시 소련이 팽창정책에 따라 서독을 점령하게 되면 소련 역시 해운의 이점도 있는 대륙국가가 될 것이라고 보았다. 상계서, p. 112.

1. 해양전략의 개념

해양전략이란 국가목표를 달성하고 국가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평시에 국가의 해군력 및 해운력 등을 운용하여 국가의 해양사용을 보장하고 적에게 해양사용을 불허하는 것으로 해양력으로 국가목표를 달성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며 보다 엄격한 군사전략의 의미를 갖는 해군전략보다 광의의 개념이다. 그리고 해양전략의 목표는 국가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해양사용 능력을 계속 보장하는데 있다.²⁷⁾

해군전략은 국가전략에 의하여 결정된 목표 또는 해양전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해군력을 운용하는 기술이며 과학이다. 해군전략은 해양전략의 하위개념으로 군사전략의 범주에 속하며 해양전략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서 실제적인 수단인 해군력을 운용하는 기술이자 과학이며, 그 목표는 해양전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해양통제를 확보하고 유지 및 행사하는데 있다. 이와 같이 해군전략은 해양전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해군력을 유지하고 증강시키는 것이며 전·평시를 막론하고 목적달성을 위하여 이를 사용하는 방법이다.²⁸⁾ 그리고 협의의 해양전략은 전·평시에 실제적인 수단인 해군력을 사용하여 해군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책략으로 정의할 수 있다.²⁹⁾ 본 논문은 전시위주의 사례를 고찰하므로 연구 목적에 맞게 해양전략의 범위를 전시위주로 한정한다. 따라서 협의의 해양전략을 해양전략으로 정의하고 해군전략과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한다.³⁰⁾

27) 해군대학, 『해군력』 (진해 : 해군대학, 1988), p. 18.

28) 김현기, 『현대해양전략사상가』, p. 31.

29) 상계서, p. 31.

30) Wegner 제독은 해양전략이란 해군전략과 구별되는 개념으로서 전시가 아닌 기간의 해군활동까지 포함되는 개념을 의미하고 해군전략은 순수한 전시에 사용되는 개념이라는 구분했지만 김종민 제독은 전시에 사용된 바다와 관련된 모든 전략을 해양전략의 범주로 간주했다. 김종민, 『전쟁과 해양전략』 (서울 : 이성과 현실사, 1992), p. 143.

해양전략은 해군력의 사용측면에 따라 수세적인 사용과 공세적 사용으로 구분된다.³¹⁾ 이때 수세적 사용은 적의 해양사용을 거부하는 해양거부사상에 해당되며, 공세적 사용은 자국의 해양사용을 추구하는 해양통제사상에 근거를 두고 있다.³²⁾ 해양거부사상은 주로 대륙국가에서 약소한 세력으로 강대한 해군력에 대응하기 위해서 발전된 개념이며, 해양통제는 주로 바다를 무대로 활약하는 해양국가의 해양전략으로 수용되어 왔다.³³⁾

대륙국가의 해양전략은 해양거부사상에 근거하여 고속정과 잠수함 세력으로 발전시키며 해양국은 전통적인 해양통제 사상에 따라 항모전투단과 수상전투단 위주로 함대를 건설하고 운용하고 있다.³⁴⁾

2. 해양국가의 해양전략

“섬나라에서 주변해양을 지배하지 못한다면 섬에서 살 이유가 없다.”³⁵⁾라는 격언이 있듯이 해양국가의 해양전략은 바다에서 사활을 결정짓는 해양통제에 중점을 둔 전략이다. 영국과 같은 해양국가들은 강력한 해양력을 바탕으로 타국으로부터 기습을 염려할 이유가 역사상 별로 없었다.³⁶⁾ 일반적으로 해양국

31) James Eberle, “*Maritime Strategy*,” *Naval Forces* (No II, 1987), pp. 38-39. 김중화, “해양전략 이론과 잠수함전 운용에 관한 연구,” p. 10. 재인용.

32) Geoffrey Till, *Maritime Strategy and The Nuclear Age* (London : Macmillan Press, 1984), pp. 16, 50, 188-192.

33) *Ibid.*, p. 115. 콜벳은 이 두가 개념이 반드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수세와 공격이 연결되듯이 상호보완적인 개념이라고 보았다.

34) Stansfield Tuner, “The Naval Balance : Not Just a Numbers Game,” *Foreign Affairs* (Jan., 1977), p. 347.

35) S. W. Roskill, *The Strategy of Sea Power : Its Development and Application* (London : Collins, 1962), 이충희·권복연 공역, 『해양전략』 (서울 : 연경문화사, 1979), p. 15.

36) Milan N. Vego ed. *Naval Strategy and Operation in Narrow Waters* (Portland, Oregon : Frank Cass Publisher, 1999), p. 16.

가는 평화시에는 무역을 통해서 수입을 올리고 인접대륙국가와 대결관계인 전 시에는 해양력으로 안전을 확보하려는 국가이다. 이런 해양국가의 해양전략사상은 기본적으로 바다를 방어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다라는 전선을 통해 국가이익을 추구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해군력에 관한 한 가상적국에 비하여 대등하거나 또한 약간 우세한 것에 만족하지 않고 반드시 압도적인 우세를 추구하려는 경향이 많다.³⁷⁾

그리고 해양국가의 해양전략은 몇 가지 특성을 지닌다. 먼저 해양국가의 해양전략의 기초는 해양의 사용(use)과 통제(control)가 중심이 되고 일단 해양 통제를 달성한 다음 전력투사를 실시하고자 한다. 이런 전략은 해양강국의 군사사상으로 해양을 지배하거나 통제하여 대륙의 질서를 자국의 국가이익에 부합되게 유지해야 하는 국가전략의 필연성으로부터 유래되었다.³⁸⁾

둘째, 전투의 수행측면에서는 결전(Decisive)사상과 적 함대봉쇄(Fleet Blockade)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함대결전은 적 함대가 존재한다는 것은 그 규모에 상관없이 항상 위협이 된다는 가정하고 가용한 세력을 이용하여 적 해군세력을 격멸한다는 개념이다. 함대봉쇄는 적 함대를 항구 내에 봉쇄하는 전략으로서 과거에는 수상함대에 의해 실시되었지만 근래에 와서는 잠수함, 항공기 및 유도탄 등을 이용하는 것이 특징이다.³⁹⁾

셋째, 함대의 구조적인 특징을 살펴보면 해상통제형해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양국가는 일반적으로 항모, 전함, 순양함, 잠수함 등 대형 전투함을 주축으로 함대를 구성한다.⁴⁰⁾

37) 강영오, 『한반도의 해상전략론』 (서울 : 병학사, 1988), pp. 36-37.

38) 상계서, pp. 36-40.

39) Benard Brodie, *A Layman's Guide to Naval Strategy* (New York :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44), p. 40. 브로디 박사는 봉쇄를 실시하는 쪽이 더 위협할 수 있다는 견해를 표명하였다.

40) 김현기, 『현대해양전략사상가』, pp. 46-51.

3. 대륙국가의 해양전략

대체적으로 대륙국가들은 해양자체를 도전으로 받아들이고 해상으로 확장하는 것보다는 육상으로 진출하는 것이 더 낫다고 보았다.⁴¹⁾ 그러므로 대륙국가의 해양전략은 해양거부에 중점을 두면서 발전해 왔다.⁴²⁾ 사상적으로 대륙적 해양전략이론에 기여한 학파는 프랑스의 오브제독을 비롯한 해군신학파(Jeune Ecole)⁴³⁾로 큰 파괴력을 지닌 어뢰정으로 전함에 대응하며, 주로 연안방어를 실시하고 순양함으로 통상파괴를 실시할 것을 주장했다. 또 다른 대륙적 해양사상의 토대를 구축한 학파는 맥킨더를 비롯한 지리학자들이 주축을 이루었는데, 이들은 국가의 외형적인 위치를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다루었다. 세부적으로 그들의 주장을 살펴보면 대륙국가들은 대륙에 진출하여 생활공간을 확보하고 경제적인 자립(Autarky)을 추구하려 하며 맥킨더의 심장부이론(heartland theory)에 매료되어 해양보다는 대륙을 지배하는 국가가 세계를 지배할 수 있다는 전략사상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대륙국가들은 지상군에 의하여 육지를 점령하고 통제하면서 해군력으로 해양강국의 개입을 거부하는 해양거부 사상을 받아들였다.⁴⁴⁾

이런 사상적인 배경과 더불어 대륙국가의 해양전략은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먼저 해양전략의 기조로 함대보존과 적의 해양사용 거부로 들 수 있

41) 나폴레옹은 프랑스함대를 현존함대(Fleet in being)상태로 유지하고 해군 자체를 통치의 위협으로 간주했었다. Andidora, *Iron Admiral*, p. 3.

42) 강영오, 『해양전략론』 (서울 : 해양전략연구소, 1998), p. 25.

43) 김종기, 『해양전략개론』 (대전 : 해군본부, 1995), pp. 68-69.

44) 일반적으로 한 국가가 대륙국가로서 전략사상을 발전시켜 나간 데는 나름대로 위치와 관련한 인접국가와 압력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그 압력정도는 인접타국이 국력이 강하고 정치 이념적으로 적대적이며 민족감정조차 크게 대립되어 있다면, 그리고 인구도 많아 생활권의 확대를 노린다면 국가들간에 압력은 매우 클 것이다. 따라서 해당국과 인접국은 자연히 사활을 걸고 육군위주로 배비하는 것은 자명하며, 자연적으로 대륙적인 군사사상이 구축되는 것이다. 임덕순, 『정치지리학원리』, p. 109.

다. 따라서 대륙국가들은 적 육군을 격멸하고 적 영토를 점령하는 것이 전쟁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확신하였기 때문에 지상군은 공세적으로 운용하고 해군력은 수세적으로 사용하여 적함대의 대륙접근을 거부하고 적 상선의 해상교통로 사용을 교란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이런 전략사상에 젖은 대표적인 국가는 17-18세기 프랑스, 그리고 제1, 2차 세계대전시 독일이다. 그 일례를 들면 해양국가인 영국과 대결했던 프랑스는 나폴레옹 통치를 받는 기간 동안 지상군제일주의에 입각한 군사전략을 추구하였다.⁴⁵⁾

둘째, 대륙국가의 해양전략은 그 실행측면에서 연안(해안)방어(Coastal Defense)와 교통파괴(Commerce Destruction)가 주가 되는 전략이다. 대륙국가들은 막강한 해양국가와 맞서 직접대결인 함대결전을 선호하기보다는 비대칭적인 방법인 적의 무역이나 자원거래를 저지하는 해양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해당무기체계에 연계하여 적용하였다. 더욱이 과학기술이 점차 발달함에 따라 해양거부사상은 소형함대를 갖춘 약소 해군국일지라도 강력한 파괴력을 가질 수 있기에 이를 빌미로 강대 해군국에 대항하여 해양거부를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에 기인한다.⁴⁶⁾ 즉 무기체계의 성능과 지상군 우위사상에 젖은 대륙국가는 지상군에 의해 넓은 횡정면의 방어와 또는 공격형태를 취하여 대륙에서의 전쟁을 수행하면서 해군은 해안 및 연안방어와 해상교통로의 파괴를 주임무로 한다. 이들 대륙국가들은 해양국의 해양통제를 위한 해양력 투자를 거부하는 것이 경제적이며 합리적이라고 판단했기에 이런 전략사상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다.⁴⁷⁾

셋째, 함대유지 측면에서 보면 대륙국가들은 일반적으로 어뢰정과 소형함선

45) Andidora, *Iron Admiral*, p. 3.

46) Milan N. Vego, "The Potential Influence of Third World Navies on Ocean Shipping" *Naval Institute Proceedings* (May, 1981), p. 40. 김종화, "해양전략 이론과 잠수함전 운용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국방대학원, 1989), p. 14. 재인용.

47) 강영오, 『해양전략론』, p. 28.

이 주를 이루고 통상과피라는 목적에 맞게 다수의 잠수함을 보유하였다. 대륙 국가는 거부형 해군을 보유함과 동시에 해운업이 발전될 수 없는 여건 때문에 자국의 해역을 타국이 사용하는 것을 거부하는데 중점을 두고 해군력을 발전시키게 된다. 따라서 대륙국가는 일반적으로 대병력주의에 의해 국가의 안전 보장을 유지하고자 한다. 환언하면 해군은 적 해군의 접근을 거부하는 개념으로 발전시키기 때문에 육군기지 중심의 요새함대가 각광을 받게 되는 것이다.⁴⁸⁾

종합적으로 대륙국가의 해양전략은 맥킨더의 심장부이론과 해양거부를 주장 해온 해군신학파의 영향을 받은 해양전략의 한 형태로 자국의 해양사용보다는 적국의 해양사용 거부에 초점이 맞추어진 전략이다. 이런 목적에 맞게 파괴력에 중점을 둔 무기체계가 각광을 받았고 특히 잠수함은 이런 방어적 목적에 가장 적합한 무기체계로 인식되어 왔다. 그리고 대륙국가들은 함대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기보다는 함대의 존재자체가 적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는 현존함대 즉 요새함대위주로 운용되었다.

第 3 節 大陸國家와 海洋國家의 潛水艦 運用

인간이 수중항해에 대한 염원을 불태워오면서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한 무기체계가 바로 잠수함이다. 20세기초 처음으로 잠수하여 상대함정을 공격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발전한 잠수함은 제1, 2차대전기간을 지나오면서 그 진가를 인정받기에 이르렀다.

48) 김현기, 『현대해양전략사상가』, pp. 52-53.

과거나 현대에 있어서 모든 해군전술에서 잠수함은 필수적인 수단이라는 사실에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 특히 대륙국가의 해양전략인 해양거부를 위한 무기체계로 잠수함 이상의 무기체계가 없으며 반면 해양통제를 위해서는 다른 무기체계와 잠수함과의 조화가 요구된다.⁴⁹⁾

1. 해양국가의 잠수함 운용

해양국가의 해양전략인 해상통제를 목표로 할 때 잠수함은 크게 4가지 역할을 할 수 있다.⁵⁰⁾ 그 역할에는 출항통제(Sortie Control), 폐쇄점통제(Choke Point Control), 광역통제(Open Area Control), 지역방어(Local Defense) 등이다. 출항통제는 적 기지나 항구를 통제하여 외해로의 목적항해를 시도하는 적 함대세력을 근원으로부터 봉쇄하여 격멸하는 것으로 과거 평면전 시대 해군에 있어서는 가장 효과적인 전술이었으며 일반적으로 봉쇄라고 일컬어져 왔다.

폐쇄점통제는 적 함대세력이 광역해역으로 나아가기 위해 불가피하게 통과해야 하는 비교적 협소한 수로의 병목현상을 유리하게 이용하는 방법으로 지리적 조건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이점에서 중요시된다. 폐쇄점통제는 아측에 유리한 조건을 부여하는 출항통제에 비하여 수로의 지리적 위치에 따라 오히려 상대방이 위협환경에서 작전해야 하는 지점이 되며 따라서 아측은 생존성과 융통성에 있어 유리한 환경에서 작전을 할 수 있다. 이런 목적에서 잠수함은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광역통제는 대양에서 적 함대세력을 추적함과 교전을 통해 격퇴함으로 해양

49) Geoffery Till, *Modern Sea Power* (London : Brassey's Defense Pub., 1987), p. 70.

50) Stansfield Tunner, "Mission of the U.S Navy," *Naval War College Review, March (1974)*, www.nwc.navy.mil/press/review/1988/winter/art10w98.htm.(검색일자: 2002, 7. 14)

통제를 달성하는 방법이며 해양통제 전략수행의 진정한 해군력은 바로 광역통제 능력에 달려 있다. 광역통제를 실시함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은 해역의 경계와 전투능력의 집중을 효과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관건이다. 이때 잠수함 역시 함대 구성세력으로서 함대전투에 직접 참여한다. 넓은 해역은 좁은 해협과는 달리 적을 탐지해야 하는 해역이 광활하기 때문에 신뢰성 있는 경계의 유지가 어려워지며 함대의 전투력 집중보다는 분산의 위험에 빠질 우려가 있게 된다. 여기서 잠수함은 은밀성을 강점으로 조기경보 또는 탐색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므로 광역통제의 유용한 수단이 된다. 그러나 제한된 능력의 잠수함세력을 분산시켜 탐색목적에 이용하기보다는 수상함정과 항공기와 의 협동작전을 유도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인 방법이 되며, 소수나 단독으로 운용될 시 그 역할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지역방어(Local Defense)는 전투국면에서의 방어 및 가시거리를 넘어선 적성국 무기체계의 긴 사정권으로부터 예상되는 위협에 대하여 방호함을 의미한다. 지역방어는 넓은 의미에서 하나의 광역통제 개념에 포함되며 연안방어는 출항통제의 반대되는 개념이 된다. 또한 지리적 조건에 따라 좁은 해협이 아측에 가까운 경우 폐쇄점통제의 측면에서 지역방어라는 전술적 적용이 가능해진다.

이상과 같이 해양국가의 해양전략인 해양통제전략하에서 잠수함은 목적달성의 유용한 수단으로서 연안방어에서 폐쇄점통제, 출항통제, 광역통제에 이르는 전술 상황에서 다양하게 이용될 수 있다. 이는 잠수함의 은밀성이라는 전술수행상 최대의 강점과 다소 제한된 능력일지라도 그 유용성이 부각된 것이다.⁵¹⁾ 그리고 잠수함 단독으로 운용되기보다는 다른 무기체계의 지원이 반드시 이루어

51) Karl Lautenschläger, "The Submarine in Naval Warfare 1901-2001," in Steven E. Miller and Stephen Van Evera eds., *Naval Strategy and National Security* (Princeton, New Jersey :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8), p. 9.

어저야만 작전의 효율을 배가시킬 수 있다.

2. 대륙국가의 잠수함 운용

대륙국가의 해양전략인 해양거부(Sea Denial)전략에서는 잠수함이야말로 절대적으로 유용한 수단이다. 잠수함이 행하는 해양거부전략의 내용으로는 연안방어(Coast Defense), 통상과괴전수행(Commerce Warfare) 등 2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연안방어는 적함대가 자국 영토근해로 접근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것이다. 보통 대륙국가들은 우세한 적 함대세력과 결전을 피하고, 잠수함을 이용하여 적 함대 세력이 자국 연안주변으로의 접근을 차단하고자 한다. 이 임무는 전 시 해군의 임무 중 하나인 적의 해양사용 거부를 달성하기 위해 수행되는 수 세적 작전의 일환으로서 지리적 범위를 자국연안으로 한정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와 같은 해군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저비용이기 때문에 대륙국가에 의해 주로 채택되어 왔다.⁵²⁾

통상과괴전(Trade Warfare, Commerce Warfare)은 전형적인 대륙국가가 해양국가의 자원유입을 차단하는 것으로 적국과 왕래하는 모든 선박들을 대상으로 공격을 감행하여 교역자체를 차단하고자 하는 방식이다. 통상과괴 임무는 그 목표대상을 적 군사력이 아닌 적국의 경제력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상선대로 선정하고 이를 파괴함으로써 적의 전쟁잠재력을 약화시키는 것이다.⁵³⁾ 통상과괴 임무는 사실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당시만 하더라도 해양 전략가들에게 그렇게 주목을 받지 못했는데 이것은 마한식의 전통적인 해양전

52) 양용모, “중심개념을 통한 잠수함전 분석,” (석사학위 논문, 국방대학교, 2001), pp. 22-23.

53) Lautenschläger, “The Submarine in Naval Warfare 1901-2001,” p. 245.

략이 추구하는 거함거포⁵⁴⁾에 의한 함대결전주의와 부합되지 않았던 시대적인 분위기 때문이었다.⁵⁵⁾ 하지만 제1차 세계대전시 독일이 수행한 무제한 잠수함전에 의하여 영국이 궁지로 몰리는 상황까지 발전하게 되자 통상파괴전에 대한 인식이 점차 변하기 시작했다. 잠수함의 통상파괴 임무는 제1차대전이 종료된 이후 해양거부전략의 중요한 분야로서 부각되었으며, 제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과 미국의 잠수함에 의해 본격적으로 수행되었다.

第 4 節 小 結 論

국가전략차원에서 볼 때 해군력이 차지하는 역할과 비중은 그 국가의 지정학적인 위치와 전통적인 전략사상에 따라 여러 국가에서 경중을 달리해 왔다. 그리고 대륙국가와 해양국가는 지리적인 위치, 타국과의 상대적인 관계, 군사사상적인 배경의 차이로 인해 달리 해양전략 개념을 발전시켜 왔던 것이다.

지리적인 위치에서 발생하는 압력으로 대륙국가에서는 대륙 중심적인 전략사상인 해양거부가 중심을 이루었고 상대적으로 자원의존도가 심한 국가인 해양국가는 평시에 경제력을 신장시키고 전시에 해양통제가 중심이 되는 전략인 해양통제전략을 발전시켰다. 즉 해양강국은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해군력을 이용하여 평시에 국가의 부를 신장하고 전시에 전승의 중요요소로 간주하였다. 반면 대륙국가의 경우에는 이러한 해군력의 개입이 그렇게 중대한 결과를

54) Andidora, *Iron Admiral*, p. 48. 거함거포주의 사상은 이탈리아 해군기술자 꾸니베르띠(Vittorio Cuniverti)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1903년 제인연감에서 꾸니베르띠는 전함이란 가능한 많은 수의 함포와 고속력, 그리고 12인치의 장갑을 보유해야 하며, 부포는 필요 없다고 주장했다. 환언하면 슈퍼전함의 압도적인 탄도는 적을 상당히 먼 장거리에서 격파할 수 있고 그리고 우세한 속력을 이용하여 계속적으로 공격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보았던 것이다.

55) Robert E. Kuenne, *The Attack Submarine-A Study in Strategy* (New Haven : Yale University Press, 1965), pp. 120-125.

가져오지 않는다고 보았던 것이다.⁵⁶⁾ 환언하면 국가전략을 수행함에 있어 해양강국은 해군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반면 대륙강국은 해군력을 소극적으로 사용하고자 했다. 이런 대륙국가와 해양국가의 해양전략의 차이로 잠수함도 그 임무와 역할이 달랐다. 해양국가의 해양전략 하에서 잠수함은 출항통제, 요새점통제, 광역통제, 지역통제와 같은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였던 반면 독일과 같은 대륙국가에서는 연안방어와 상선대를 대상으로 한 통상파괴전이라는 독특한 임무를 수행하였다.

56) 김현기, 『현대해양전략사상가』, p. 54.

第 3 章 海戰史를 통해 본

海洋戰略과 潛水艦 運用事例

第 1 節 第1次 世界大戰

제1차 세계대전은 1914년 7월 28일부터 1918년 11월 11일까지 4년 3개월간 32개국이 참전한 최초의 세계대전으로서, 독일을 중심으로 한 오스트리아, 이탈리아는 3국동맹을 영국, 프랑스, 러시아는 3국협상을 맺으면서 전개되었다. 사실상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유럽 각국은 제국주의적 팽창 속에서 대립과 첨예한 민족간 문제로 언제 어디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위기를 조성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보·불전쟁 이후 유럽대륙의 강국으로 부상한 대륙국가 독일은 산업기반을 정비하고 이에 따른 경제력이 증가됨에 따라 공업원료와 상품시장의 확보, 나아가서 자본시장의 획득을 위하여 해외식민지 개척에 전력을 쏟고 있었다. 그리고 독일은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함대창설과 확장을 도모하였다.⁵⁷⁾ 즉 대륙국가인 독일의 신장된 국력은 해외 노력을 바다 쪽으로 돌리게 된 것으로 전형적인 마레 노스트럼의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독일의 노력 중에서도 특히 함대창설은 해양국가인 영국에게는 직접적인 위협이 되었으며, 치열한 건함경쟁은 영국으로 하여금 종래의 2국 표준주의⁵⁸⁾를 유지하지 못하게 했다. 그리고 소위 영예로운 고립정책

57) 1870년대 영국은 제조업 분야에서 전세계의 32%를 차지하고 있었고 세계교역의 25%를 점유했으나, 1900년대 초에는 영국은 전세계의 교역분야에서 15%이하로 떨어지면서 쇠퇴기를 걷고 있었다. 20세기에서 독일은 자국의 지위를 급속하게 신장시켰으며 유럽의 경제를 선도하는 수준에 이르게 했다. 독일은 철강분야에서 1896년에 영국을 앞질렀고, 1914년 그 규모를 보면 1400만 톤 대 650만 톤 정도로 현격한 격차를 벌려 놓았다. Andidora, *Iron Admiral*, pp. 46, 48.

(Splendid Isolation)을 버리고 영·불 해군협정과 영·로 해군협정을 체결하게 되었으며, 독일과의 일전을 각오하기 시작했다.⁵⁹⁾

제1차대전 기간 중 해상에서의 전투는 대륙국가와 해양국가간의 격투로써, 영국과 독일사이에 5차례의 해전⁶⁰⁾과 영국과 미국의 통상보호 대 독일의 통상 파괴전을 기도한 잠수함전으로 나눌 수가 있다.

1. 영국의 해양전략

대전 전에 이미 독일의 이상 징후에 당혹하고 있던 영국은 나름대로 연합 계획에 따라 함대를 준비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딜레마를 안고 있었다. 그것은 다른 아닌 해양국가가 대륙에서의 힘의 불균형에 대해서 무관심할 수 없다는 사실이었다. 독일의 도전이 입증되어가자 영국은 영불해협, 대서양, 태평양에서 자국의 절대적인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확신을 가지기 시작했다.⁶¹⁾

영국의 해양전략은 대함대(Grand Fleet)로 독일의 통항을 저지하고 국지해역과 대양에서 독일의 대양함대(High Sea Fleet)를 결전을 통해서 완전히 제거하고 제해권을 획득한 후 독일 해군기지에 대한 봉쇄(Blockade)를 실시하여 전쟁을 승리로 이끌려는 것이었다.⁶²⁾ 이런 영국의 해양전략은 전통적인 결전

58) 제1차세계대전 발발 20년 전부터 영국의 해군세력은 독일해군의 도전을 받아 격심한 경쟁을 치르고 있었다. 이때 영국이 취한 정책이 <Two Power Standard> 인데 이것은 주력함 세력에 있어 제2위 해군국과 제3의 해군국의 두 함대를 합친 것 보다 열세하지 않은 함대를 보유한다는 의지에서 나온 것이며 그레야만 해양국가로서 명맥을 유지할 수 있다고 믿었던 전형적인 해양국가의 함대유지 정책에 기인한 것이었다. 이정수, 『대해전사』 (서울 : 정음사, 1986), p. 179.

59) 이종학외 3명, 『종합세계전사』 (서울 : 박영사, 1978), pp. 180-181. 종합정리.

60) 해군대학, 『세계해전사』 (대전 : 해군대학, 1998), pp. 168-224. 헬라고 비기트해전, 코로넬해전, 도거뱅크해전, 다다넬스해전, 유타란드해전을 말한다.

61) 임인수·정호섭 역, 『역사를 전환시킨 해양력』, p. 286.

62) 해군본부, 『잠수함 회고와 전망』 (서울 : 해군본부, 1985), p. 97.

사상에 입각한 해양통제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⁶³⁾

전쟁이 시작되어 함대간 결전에서 독일이 사실상 승리하지 못하자 독일은 잠수함을 통한 무제한 통상파괴전을 감행하였으며, 이에 대항하여 영국은 선단호송과 같은 방법으로 통상보호작전을 수립하게 된다. 도입초기 선단호송에 관하여 많은 격론이 벌어졌지만 선단을 형성해서 선박들이 이동하게 되면 잠수함의 공격기회가 오히려 줄어들게 되는 유효한 방법으로 인식되어 채택되었다.⁶⁴⁾

종합적으로 영국의 해양전략은 대구경포를 장착한 전함위주의 우수한 대함대(Grand Fleet) 세력으로 독일 대양함대(High Sea Fleet)를 해상결전을 통해 격파하여 해상통제권을 확보하고 이를 연장하여 독일을 해상봉쇄하려는 전략이었다. 영국은 독일잠수함의 무제한 통상파괴전에 대응 수단으로 호송체제(Escort Convoy)를 도입하여 통상보호전에 돌입하고 잠수함을 비롯한 다양한 무기체계를 이용한 다각적인 대잠방책(anti-submarine measures)을 수립하였다. 그리고 영국은 자국의 잠수함을 해상결전을 위한 함대의 한 부분으로만 고려하고 있었다.

2. 독일의 해양전략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전 독일황제는 티피츠(Tirpitz)제독의 건의에 따라 강력한 함대를 건설하고 이를 이용하여 해외시장과 관련한 국제 정치적 목

63) Sir Julian Corbett, *Some Principles of Maritime Strategy* (London : Longmans, Green and Co., 1911), p. 91. 제1차대전 직전 영국의 전략가 콜벳은 해양국가 영국의 해양전략은 제해권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며 해군력을 사용하여 적 함대와 전투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확보하여 얻어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64) John Keegan, *The Price of Admiralty : The Evolution of Naval Warfare* (New York : Penguin Book, 1988), p. 257. 선단호송은 제1차대전에 생겨난 특별한 형태의 해전의 한 형태가 아니라 로마시대에서부터 스페인전쟁, 나폴레옹 전쟁 등에서도 이용된 적이 있었다.

적을 달성하려 했다. 이런 독일의 정책 하에서 해양전략가인 터피츠는 위험-함대이론 (risk-fleet theory)⁶⁵⁾을 도입하면서 해외통상과 식민지는 강력한 함대를 건설해야만 효과적으로 확보될 수 있으며, 비록 영국과 같은 강력한 해양국가의 함대라 할지라도 자국의 함대를 최대한으로 만들면서 독일에게 대항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독일함대는 영국보다는 대륙과 연한 더 자유스런 국가적인 환경에 놓여 있으므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터피츠는 독일함대는 굳이 영국함대만큼 강대해질 이유는 없으며 영국이 강력해진 독일함대에 대항해서 결전을 치르기 위해 함대전체를 집결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리고 터피츠는 집중되어 있는 독일함대에 동맹국의 힘을 합세시킨다면, 영국은 위협을 무릅쓰고 자국의 함대를 집중하지 않을 것인바, 해외식민지에 관련하여 적어도 독일은 영국의 목인을 얻을 수 있을 것이고 강력한 현존함대를 유지한다는 것은 강압(coercion)의 수단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보았던 것이다.⁶⁶⁾ 이와 동시에 독일 해군수뇌부들은 영국해군의 부적절한 전방전개를 이용하여 부분적인 함대기습을 감행하려는 생각을 지니고 있었다.

해양과 관련된 독일의 정책을 요약해 보면, 독일은 위험 함대이론을 수용하여 영국함대와 제한적인 결전을 감당할 수 있는 대양함대(High Sea Fleet)를 건설하였으며, 영국의 부적절한 함대운용을 틈타 기습하거나 현존함대라는 강압으로 영국의 목인을 유도하고자 했던 것이다.

독일은 후기 함대결전에서 대양함대가 패하게 되자 영국의 전쟁잠재력을 말

65) 위험함대 이론이란 터피츠제독의 함대건설 논리로 최상의 함대수준까지는 될 수 없지만 어느 정도 강력한 함대를 보유하게 되면 초 강력한 함대가 쉽게 위협을 감수하면서까지 결전을 강요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다. Stephen E. Ambrose "Seapower in World Wars I and II" in Mitchell Simpson III ed., *War, Strategy, and Maritime Power* (New Brunswick, New Jersey : Rutgers University Press, 1977), pp. 175-177.

66) *Ibid.*, pp. 175-179.

살시키고 항복을 유도하기 위해 무제한 잠수함전을 감행하였으며, 이는 지상전 우위사상에 젖은 전통적인 대륙국가의 국면타개용으로 잠수함이 사용되었던 것이다. 이런 잠수함전 사상에 따라 함정건조분야도 잠수함 분야에 치중하게 되었다.

3. 해전의 양상

함대간 결정적인 전투로 제해권을 확보하고 독일을 봉쇄하여 전쟁지속력을 감소시키고자 기도했던 영국함대와 영국함대의 영성한 함대전개를 틈타 그 일부 세력을 기습하고 영국함대의 봉쇄를 타개하고자 한 독일함대간의 격돌은<표3-1참조> 우연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대부분이었다.

영·독간의 첫 번째 해전은 제1차 세계대전이 개전된 직후인 1914년 8월 28일에 벌어진 헬리고랜드 비기트(Helligoland Bight) 해전이었다. 영국해군은 경순양함 2척과 구축함 3척으로 독일의 순양함 6척과 조우하여 교전하게 되었

<표3-1> 제1차 세계대전 직전 영·독 함대세력 비교

구 분	영 국	독 일
노 급 전 함	20	13
구 식 전 함	40	20
전 투 순 양 함	9	4
장 갑 순 양 함	34	9
경 순 양 함	74	41
구 축 함	167	130
잠 수 함	78	30
세 력 비	7	4

출처 : 해군대학, 『세계해전사』, p. 170.

으며, 교전과정에서 영국함대는 위기에 몰렸으나 뒤따라온 영국 순양함전단이 독일의 경순양함 3척을 격침시킴으로서 일단 영국의 승리로 귀결되었다. 그러나 헬리고랜드에서 영국의 승리는 독일의 대형함정과 조우하지 못해 결전이 불가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약간 퇴색되기는 했다.⁶⁷⁾ 헬리고랜드의 전투는 1척의 구축함과 3척의 순양함 손실을 입은 독일에게는 물질적인 피해이상으로 정신적으로 엄청난 충격을 던져 주었다. 반면에 비티(David Beaty)제독은 기뢰와 잠수함의 위협 하에서 용감무쌍한 행동으로 영국국민의 사기를 크게 북돋아 주었을 뿐 아니라 독일에게는 영국이 아직도 해상에서 패권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과 또한 해상에서 영국은 항상 공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각인시켜 주었다. 반면 독일은 상당기간 동안 준비해온 영국과의 부분적인 함대간 결전에서 자신감을 잃고 이후 수세적인 전략을 유지하려 했다.⁶⁸⁾

두 번째 해전은 1914년 11월 2일의 코로넬(Coronel)해전이다. 1898년 독일은 중국 청도에 해군기지를 획득한 이후 개전 당시까지 캐롤라인, 마샬, 마리아나 제도 등 해외기지를 가지고 있었다. 영·일동맹 하에 독일에 대해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일본은 영국과의 동맹을 근거로 독일에 선전포고를 했으며, 이런 일본의 위협을 받은 스페(Graf von Spee)제독은 태평양전대를 인솔하여 남미대륙의 서해안을 경유하여 독일로 회항하면서 통상과괴전을 수행하고자 했다. 1914년 11월 1일 독일 상선이 영국 군함이 코로넬에 투묘하고 있다는 정보를 전파함에 따라 전개된 이 해전은 독일전대가 세력과 화력부분의 우세로 승리하였으며, 영국 경순양함 글래스우(Glasow)가 격침되었다.⁶⁹⁾

세 번째 해전은 포클랜드해전(the Battle of the Falkland)으로 코로넬해전의

67) 당시 독일의 히페르(Franz Hipper)제독의 전투순양함들은 출항명령을 수명하였으나 저조로 인해 저속으로 기동하였고 영국의 베티세력은 이들 세력과 교전하지 못했다. Andidora, *Iron Admiral*, p. 59.

68) *Ibid.*, p. 60.

69) 해군대학, 『세계해전사』, p. 179.

패전소식을 접한 영국해군성은 스테디(Sturdee)제독과 전투순양함⁷⁰⁾ 2척을 포클랜드로 향하게 했다. 이 해전은 12월 8일에 치러진 것으로 함대결전 사상에 젖은 강력한 영국함대가 스페제독과 결전을 벌여 독일함대가 전멸하는 것으로 종결되었다.

네 번째 해전은 도거뱅크해전(Dogger Bank Action)으로 1915년 1월 24일에 있었으며 독일의 전투순양함 3척, 장갑순양함 1척, 구축함 2척이 영국 동부해안의 항만을 포격하려는 의도에서 발생한 해전이였다. 결과적으로 독일은 허술한 영국의 함대전개를 이용한 일종의 기습작전을 시도한 것이다. 독일이 침공하리라는 사전정보를 입수한⁷¹⁾ 영국은 전투순양함 3척, 장갑순양함 1척, 경순양함 2척, 구축함 2척으로 도거뱅크(Dogger Bank)에서 독일함대를 차단하려고 했다. 결국 이 해전에서 독일함대가 패하여 3척의 독일 전투순양함은 가까스로 위험에서 탈출할 수 있었으며 대양함대의 주력부대는 결전을 회피하고 간만의 차이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도거뱅크해전은 영국의 전술적인 승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영국은 50명 정도 사망자만 있었을 뿐 함정의 손실은 없었던 반면 독일은 1척의 함정과 1천명 이상의 인명손실을 입었다. 도거뱅크해전에서 사실 영국의 피해도 적지 않았다. 이후 독일은 위험을 감수하면서 영국에 대한 도전을 하지 않으려고 했으

70) Andidora, *Iron Admiral*, p. 59. 피셔는 과거 전투순양함이 노급전함시대에 장갑순양함(armoredcruiser)을 대체할 것이라고 예견했다. 전투순양함은 비록 함포 보유수에서 노급전함보다 2문 적었지만 노급전함이 장착하고 있던 동일한 구경의 함포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장갑순양함과는 분명한 능력의 차이가 있었다. 함대세력에 편입되었을 때 피셔가 고안한 전투순양함은 돌격대열(flying column)을 형성하였고 이 돌격대열은 함대정찰을 신장시켰으며, 우수한 기동력으로 적 주력체를 포위할 수 있도록 했다.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 영국해군은 전투순양함을 총 9척 보유하고 있었는데, 그 중 5척은 영국근해에, 3척은 지중해, 1척은 태평양에 배치하고 있었다. 이에 비해 독일은 쥬다(Jade)만에 3척의 전투순양함만을 보유하고 있었다.

71) 1915년 12월 경 “해독실 40”의 암호 해독가들은 독일의 무선통신 상당수를 해독할 수 있었다. 영국이 이런 능력을 가진 데에는 러시아의 도움이 컸다. *Ibid.*, pp. 63-64.

며⁷²⁾ 그 결과 15개월 동안 독일은 작전우선권을 U-boat에게 돌리고 수상함정들은 항만 내에 묶어놓는 조치를 취했다.⁷³⁾

마지막 해전은 과거 유래가 없는 대규모의 함대간 해전인 유틀란드(Jutland) 해전으로 1916년 5월 31일에 있었다. 1916년 독일 대양함대 사령관이 된 웨르제독은 지상작전의 교착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해군주력으로 영국해군의 봉쇄를 제거할 목적의 유인-기습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리하여 영국 대함대가 노르웨이해안에 있음을 탐지하고 먼저 정찰부대를 보내어 유인하도록 한 다음 자신은 주력함대를 이끌고 제한적인 결전을 감행할 생각을 하고 있었다.

1916년 5월 31일 벌어진 유틀란드해전은 크게 3단계로 진행되었다. 첫 단계에서는 전위부대간 접촉으로 독일함대가 영국 전초단대를 대양함대 주력체로 유인했다. 그리고 주력단대에 발각된 영국 비티의 전초단대를 독일이 추격하는 것이 제2단계이다. 제3단계에서 웨르 독일대양함대 사령관은 영국 대함대(사령관 존 젤리코)와의 직접대결에서 승산이 없다고 판단하고 도주하는 단계로 연막과 구축함의 호위로 가까스로 위기의 순간에서 도피했다. 여기서 영국함대를 따돌린 데에는 사전에 연습한 전투회전(Battle turn)⁷⁴⁾이 주효했다

이 해전에서 영국은 퀴 매리함, 인디퍼게터블함, 인빈서빌함외 3척의 중순양함과 8척의 구축함을 잃어 그 손실이 함정 총 14척, 113,300톤 인명 5,680명이었으며 독일은 류츠초함, 폼메른함외 4척의 경순양함과 5척의 구축함을 잃어 그 손실이 함정 11척에 60,700톤, 인명 2,540명이었다. 언뜻 보기에는 독일이

72) *Ibid.*, p. 68. 잉게놀제독이 패한 사유로 해임되고 후임으로 소심한 폰 폴(Von Pohl)이 부임하여 이후 15개월 동안 전체 함정 기동훈련을 단 5차례 밖에 실시하지 않았다.

73) E. B Potter and Nimitz eds., *Sea Power : A Naval History* (New Jersey : Princetice-Hall, Inc., 1960), pp. 394-411.

74) Andidora, *Iron Admiral*, p. 77. 웨르는 함대전체에 사전에 약속된 전투회전(Gefechtskehrtdung 또는 battle turn)을 지시하였는데 이 변침지시는 맨 후미 전함이 즉시 원침로에 대해서 180도 회전하게 되고 이후 그 다음 함정은 변침 중인 후미함정의 함미를 보았을 때 다시 즉시 변침하는 것이다.

승리한 해전이었지만 이 해전에서는 어느 일방의 결정적인 승리도 또한 치명적인 패배도 가져오지 않았으며 제1차대전에서 뚜렷한 전환점도 마련하지 못했다. 그러나 해전의 결과를 두고 독일은 승리를 자축했으며 영국의 참패했다는 암담한 분위기에 휩싸였다.⁷⁵⁾

그러나 이후 대서양은 영국의 전유물이 되었는데, 이는 영국이 완전히 제해권을 확보하고 해상통제를 실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 것이다. 물론 이 해전에서 독일함대는 열세한 세력으로 우세한 결과를 도출했지만 전의를 잃고 이후 외해로 나오지 않았으며 통상과피전에 치중하여 잠수함 위주로 전략을 수정하기 이르렀다.<표 3-2 참조> 반면 영국은 함대를 바다의 귀속물로 여기는 전통적인 사상으로 공세위주로 함대를 정비하여 대서양에서 제해권을 완전히 장악하게 되었으며 독일에 대한 해상봉쇄를 더욱 강도 높게 실시했다.

제1차 세계대전의 결과는 해군력의 지위에 큰 영향을 주었다. 영국해군은 해상에서 독보적인 지위를 상실했으며 전쟁 전에 확신했던 2국 표준주의도 포기해야 했다. 그리고 독일은 제1차대전 이후 해군을 보유할 기회를 빼앗겼다. 잠수함을 포함한 모든 주요함정은 영국과 프랑스와 같은 연합국에게 넘겨졌고, 이들 전승국은 1,600톤급 이상의 화물선을 인수하였으며 독일에는 작은 선박만 남겨 두고 조선소의 모든 장비는 전쟁배상의 대가로 영국에 지불되었다. 결국 1918년 11월 21일 새벽에 9척의 전함, 5척의 전투순양함, 7척의 경순양함, 42척의 독일 구축함이 스카파프로를 떠나 스코트랜드로 이동되어 억류당했다.⁷⁶⁾

4. 잠수함전

75) 이종학외 3명, 『종합세계전사』, pp. 210-211.

76) Andidora, *Iron Admiral*, p. 90.

제1차 세계대전 기간 중의 잠수함전은 주로 독일 U-Boat⁷⁷⁾에 의해서 이루어졌으며 1914년 8월 개전 후 한 달만에 영국순양함이 독일 잠수함 U-21함에 의해 격침되면서 전개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9월 22일 더치 하버항 외곽에서 영국 순양함 3척이 독일 U-9함에 의해 다시 격침되었다. 그러나 1917년까지 독일 잠수함은 그다지 많은 활동을 하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충분한 세력이 없었다는 점과 잠수함에 관련된 전술(submarine tactics)이 아직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마침내 1917년 잠수함부대가 어느 정도의 규모를 갖추자 루덴도로프(Ludendorff)장군을 포함한 독일 전쟁지도부에서는 영국 대함대에 의해 제해권이 박탈당한 상태에서 함대보존(Fleet in Being)정책을 고수하면서 잠수함작전을 적극적으로 전개한다는 해양전략을 수립하였다. 이로써 독일 해군은 잠수함을 주축으로 한 총력전(all-out *guerre de course*)의 형태로 통상 파괴전에 뛰어들었으며 독일 잠수함 공격은 영국해협과 지중해 해역에 집중되었다.⁷⁸⁾

개정된 독일의 해양전략은 당시 독일의 육상상황인 1914년의 서부전선, 베르덴과 솜르 전투에서 패배라는 견딜 수 없는 교착상태와 맞물려 미국이 개입하기 전에 영국을 항복시킬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다시 말하면 해양통제권을 갖지 못한 독일이 적극적인 해양거부의 일환으로 잠수함을 이용한 무제한 통

77) Bryan Ranft, *Ironclad to Trident : 100 Years of Defence Commentary Brassey 1886-1986* (London : Brassey Defence Publisher, 1985), p. 107. 독일 잠수함의 형태는 U C형, U B형, 일반적인 U형 그리고 개량형 U형이 있었다. U C는 주로 기뢰부설 임무를 수행하였으며 전장 160피트, 작전가능일수 7-14일로 기뢰 및 연안 방어 임무를 수행했다. 그리고 U B는 180피터의 전장과 14-24일 정도의 작전이 가능했으며 기뢰 및 어뢰로 무장하고 있었으며 근해에서 약간 벗어난 곳까지 작전이 가능했다. U보트는 220피터의 전장과 최대속력 16노트, 20-30일 간 작전이 가능했으며 주로 연안에서 벗어난 지역에서 통상파괴전에 참여했다. 마지막 개량형 U보트는 300피터 이상의 전장과 어뢰로 무장하고 있었으나 속력이 느린 탓에 그리 위협적이지는 못했다.

78) Ambrose, "Seapower in World Wars I and II," pp. 178-179. 루덴도로프는 무제한 잠수함전을 전개한다면 미국이 영국 쪽으로 기운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미국이 참전하기 이전에 전쟁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상과괴전을 실시하게 된 것이다.⁷⁹⁾ <그림 3-1 참조>

독일 잠수함의 전술을 살펴보면 초기에는 주로 잠수함이 부상하여 탑재된 포로서 상선을 공격하며 국제법을 준수하였으나, 영국이 잠수함의 취약성을 간파하여 Q-ship과 같은 상선을 무장시켜 독일 잠수함에 대항하였기 때문에 이후 독일의 잠수함은 잠항상태에서 어뢰를 사용한 공격형태로 전술을 전환했다.

<표3-2> 통상과괴전에 따른 독일 잠수함의 손실도

연대	선박건조	선박손실	잔여(다음해 1월 1일 기준일)
1914	31	5	26
1915	93	25	68
1916	188	50	138
1917	291	122	169
1918	372	202	172

출처 : W. O. Stevens and Allan Westcott, *A History of Sea Power* (New York : Doran & Company, 1941), 김일상 역, 『세계해전사』 (서울 : 연경문화사, 1981), p. 4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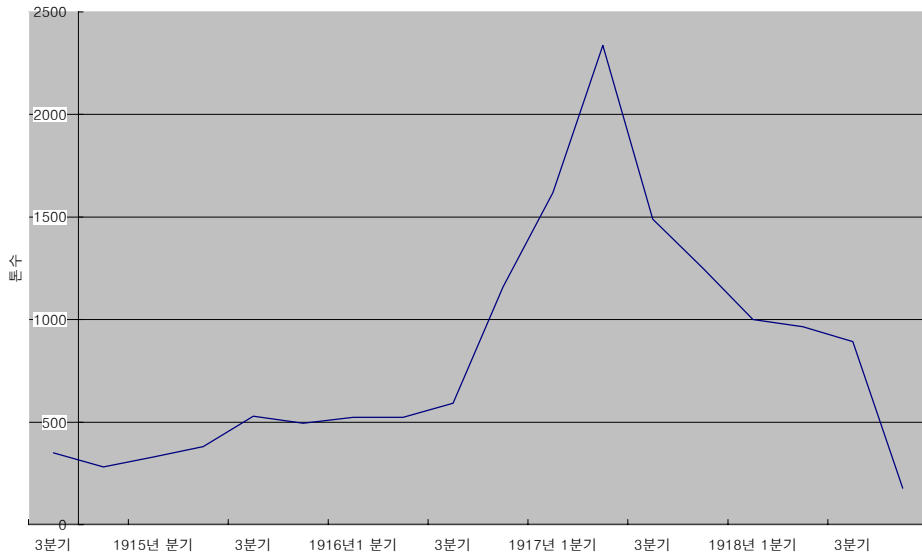
국제법을 준수할 수 없다는 달라진 상황을 맞게 된 독일 잠수함은 무차별 공격 형태를 지향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독일해군은 적·아식별에 많은 지장을 받았다. 그러나 이런 무차별적인 독일의 통상과괴전은 1918년 가을 휴전 시까지 계속되었다. 그리고 그 효과는 실로 대단하여 영국 국민생활은 극도로 압박되어 만일 미국이 참전하지 않았더라면 영국은 패배하였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었다.⁸⁰⁾

79) 임인수·정호섭 역, 『역사를 전환시킨 해양력』, p. 310.

80) 해군본부, 『잠수함 회고와 전망』, p. 99

전쟁전에 독일잠수함의 위협을 예상치 못한 영국은 전쟁중 잠수함의 위협을 고려하여 함대의 위치를 자주 변경하고 되도록 독일 잠수함의 작전구역과 멀어지려 했다.⁸¹⁾ 이런 소극적인 방법과 더불어 영국은 상선을 무장시키거나 호송체제를 도입하였으며, 기뢰부설, 거물 및 방책망을 북해 및 도버, 그리고 오트란토에 설치하는 등 적극적인 전술개발에 나섰다.

<그림3-1>통상과괴도표



출처 : 김일상 역, 『세계해전사』, p. 435.

그리고 벨기에로 통하는 독일 항구를 기뢰로 봉쇄했다. 이후 연합국 측은 호송체제와 대량의 상선대를 조직하여, 구축함으로 근접 호송토록 하여 목적지까지 보호하도록 했다. 이런 호송체제로 인해서 독일의 잠수함공격은 결국 압도되기 시작했다.⁸²⁾ <그림3-1참조>

81) Andidora, *Iron Admiral*, p. 62.

82) 호송체제가 도입되기 이전에 영국의 상선 4척 중 1척은 손실을 입었으며, 영국이

1915년 처음 호송제도 도입에 냉담하던 영국과 연합국 측은 호송제도의 긍정적인 면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다른 아닌 호송선박들이 잠수함의 표적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과 잠수함이 상선대를 공격할 시 잠수함 자체가 오히려 위협에 빠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연안에 근접하여 호송작전을 실시할 경우 대형 잠수함의 접근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 등이었다.⁸³⁾

독일이 위협적이기는 했지만 성공적으로 잠수함작전을 완수할 수 없었던 이유는 아마도 효과적으로 통상파괴전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숫자의 잠수함을 보유하지 않았던 점과 더불어 영국의 호송과 대잠작전이 주효했다고 볼 수 있다.⁸⁴⁾ 물론 영국은 자국의 잠수함으로 18척의 독일잠수함을 격침시킬 수 있었다.⁸⁵⁾ 그러나 잠수함을 2차적인 무기 또는 비신사적인 함정으로 생각하는 수상함정 결전사상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영국 잠수함의 전과는 그리 높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통상을 파괴하는 독일 잠수함의 임무와 달리 적함을 격파하는 것으로 주임무로 삼았던 탓에 수상함간의 결전에서 영국 잠수함이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던 것이다.

생산할 수 있는 상선을 수를 넘어서고 있었다. 즉 영국은 거의 실신상태에 이르렀으나 호송제도의 도입으로 80%의 선박이 유보트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 있었다. *Ibid.*, p. 180.

83) 호송체제의 창안자는 해군성이 고안한 것이 아니라 영국 수상 Lloyd George의 지시에 제국방위위원회(The Committee of Imperial Defense)위원장이자 전쟁성 장관인 Hankey가 창안한 것이다. 이런 호송제도라는 사상 초유의 실험에 영국해군은 비전문가적인 발상이라고 적잖게 반발했었다. Ambrose, "Seapower in World Wars I and II," pp. 179-181.

84) Brodie, *From Crossbow to H-Bomb*, pp. 183-185. 영국과 연합국은 독일잠수함이 필히 통과해야 하는 북해지역에 기뢰장벽지대(mine barrage)를 만들고 12,450발의 기뢰를 부설했으며, 폭뢰라는 대잠병기와 항공기까지 정찰 수단으로 사용하였다. 뿐만 아니라 영국잠수함(특히 "R"급)은 직접 독일잠수함 공격에 주력하였다.

85) 독일의 전체 잠수함 손실 중 단 10%가 영국잠수함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반면 독일은 통상파괴전에 주력한 탓에 영국 잠수함을 단 5척 밖에 격침시키지 못했다. Lautenschlager, "The Submarine in Naval Warfare 1901-2001," p. 253.

5. 분석

종합적으로 보면 제1차대전에서 해양국가 영국은 함대결전과 봉쇄로 독일을 압박하였으며, 대륙국가 독일은 기습-유인이라는 제한적인 함대결전, 그리고 해양거부 사상에 젖어 잠수함을 이용한 무제한 통상파괴전을 펼쳤다. 그리고 독일의 무제한 잠수함전에 대항하여 연합국 측에서는 호송제도가 도입되고 봉쇄를 타개하지 못한 독일은 결국 영국에게 패배하였다. 대륙국가와 해양국가의 잠수함 운용 역시 현저한 차이를 보였다. 영국은 함대결전보조용 정도로 고려하였으나 독일은 기뢰부설, 통상파괴전수행 등을 고려했다.

지상군 위주의 전략사상에 심취한 대륙국가 독일의 전략적 오류는 자원이 빈곤한 해양국가인 영국의 교역을 차단할 자국세력들의 운용전략 즉, 수상함과 잠수함을 함께 이용하는 전략을 조기에 수립하지 못했다는 것에 있었다. 따라서 독일 함정들은 산발적인 작전을 감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⁸⁶⁾ 그리고 유탄란드해전에서와 같이 우세한 함대결전을 펼치고도 함대를 부두에 정박시키고 소극적인 작전을 펼쳤다는 점도 또 다른 실패의 원인으로 지적될 수 있다.

제1차대전에서 대륙국가인 독일이 패전하게 된 또 다른 원인은 자원을 비롯한 병참분야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강력한 대륙적 동맹을 가지지 못했으며, 제한된 자원에 비추어 단기결전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지구전과 무제한 잠수함전을 전개하여 양면전을 펼쳤다는 점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다. 이에 비해 해양국가인 영국은 강력한 동맹체제를 구축하고 있었고 이런 튼튼한 동맹에 힘입어 영국은 전쟁초기부터 독일연안을 강력한 해군력으로 봉쇄함으로써 독일을 경제적으로 고립시키고 후방국민들을 아사상태로 몰아넣었다. 연합국의 해상봉쇄를 타개할 만한 세력을 갖지 못한 독일은 무제한 잠수함전으로

86) Andidora, *Iron Admiral*, p. 55.

한때 영국에 게 극심한 타격을 주었으며 이런 독일의 잠수함 운용은 적절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조기에 그리고 더 많은 잠수함세력으로 독일이 통상과괴전을 실시했다라면 결과는 분명 달리 나타났을 것이다.

第 2 節 第2次 世界大戰

제1차 세계대전의 결과로 구축된 베르사이유 체제⁸⁷⁾를 무너뜨리려고 노력한 독일은 나찌가 정권을 장악하자 대륙사상의 근간인 심장부이론에 더욱 심취하여 생존권을 주장하며 지상전을 중심으로 한 대륙적인 성격으로 전쟁을 전개시키기 시작했다. 독일은 1938년 3월에 오스트리아를 병합하고 다시 그 해 9월에 뮌헨회담에서 체코슬로바키아의 영토인 수테란드 분할을 승인 받은 후, 1939년 5월 프라하에 진주했다. 사상 최초의 세계기구인 국제동맹이 약화된 점과 뮌헨회담에서 영국과 프랑스의 유화정책을 이용한 나찌 독일은 신속하게 폴란드를 제압했다. 루마니아, 그리스, 폴란드 등에 대해 안전보장을 약속하고 있던 영국은 1939년 9월 3일 독일에 선전포고하고 전쟁에 뛰어 들게 되었다.⁸⁸⁾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독일과 더불어 추축국으로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다. 1932년 일본은 만주를 유린한 후 1937년 중일전쟁을 도발하여 중국대륙을 석권하고자 했다. 이런 대륙으로의 일본의 팽창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던 미국과 유럽 열강들은 일본에 대항한 적극적인 정책을 수립하기 시작했다. 1941년 6월 독·소간에 전쟁이 시작되고, 일본과 네델란드의 교섭이 결

87) 이종학 외 3명, 『종합세계전사』, pp. 234-235. 베르사이유 조약으로 독일은 장교 4,000명, 사병 9,000명 이상을 보유할 수 없었다.

88) 해군대학, 『세계해전사』, p. 225.

렬되면서 급기야 7월에 일본군이 프랑스령인 인도차이나 남부로 진주했다. 8월에는 미국의 대일본금수조치가 내려지는 등 사태는 더욱더 긴박해졌다. 일본은 독·소전쟁의 진행정도를 봐가면서 북만주지역에 진출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으나 독소전이 진전이 없자 남방지역쪽에 전념하기로 국방방침을 수정했다. 이로서 초기 독일의 전격적인 승리에 고무된 일본은 미국과의 일전이라는 모험주의로 태평양전쟁을 결심하게 되었던 것이다.⁸⁹⁾

제2차 세계대전 역시 전역 별로 대륙국가와 해양국가의 전쟁수행양상은 판이하게 다르게 전개되었으며, ‘대륙으로의’ 또는 ‘해양으로의’ 전략이 국가의 운명을 어떻게 좌우하는가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1. 大西洋 전역

(1) 영국의 해양전략

개괄적으로 개전 당시 영국의 전반적인 여건을 살펴보면, 상황은 제1차대전 때 보다 더 영국에게 불리했다. 과거 프랑스와 유지하고 있던 동맹체제가 없었고 또한 프랑스가 조기에 몰락함으로써 유럽대륙에서 지지 기반이 송두리째 사라졌다. 따라서 영국은 제2차 세계대전을 맞아 제1차대전의 전쟁방식을 완전히 배제하고 장기전 형태를 취하려고 했다.⁹⁰⁾

개전 초 영국의 군사전략은 전통적인 방식인 지상에서 대규모의 전쟁에는 직접 참여하지 않으면서 적국의 해안외곽을 치고 빠지는 해양국가적 방식을

89) 우학선 편저, 『태평양전쟁』(서울 : 명지출판사, 1982), pp. 26-29. ; 해군대학, 『세계해전사』, pp. 284-285.

90) G. A. H. Gordon, “The British Navy, 1918-1945,” in Keith Neilson and Elizabeth Jane Errington, *Navies and Global Defense* (Westport, Connecticut : Praeger, 1995), pp. 173-174.

채택했다. 그리고 지상군을 투입할 때는 상대방이 극도로 지쳐있을 경우로, 승산이 많은 작전에 한정하였다. 해양전략 측면에서 영국은 함대세력을 온전하게 유지하고 결전에 대비하며 적함대를 적극적으로 색출하여 격멸한다는 함대결전사상을 고수했다. 그리고 제해권을 적극적으로 유지하면서 상륙작전을 공세적으로 실시하여 세력투사를 감행하려 했다.⁹¹⁾ 따라서 영국은 제해권을 유지하고 해상교통로를 통한 원활한 물자교역과 병참지원을 해양전략의 목표(Strategic Aims)로 정했다.⁹²⁾

이런 전략적 목표 하에 영국은 제1차대전 경험의 상기를 토대로 통상을 보호하기 위해 고속호송함정을 건조하기로 결정했으며, 개전 전에 10척의 헌터급 구축함과 개전 후 바로 57척이라는 코벳함의 건조가 승인되었다. 그리고 영국은 제해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전시에 이들 함정을 76척 더 건조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⁹³⁾

종합적으로 영국은 대함대세력으로 해상결전을 추구하여 제해권을 행사하고 독일의 통상파괴전에 대비해 호송제도를 체계적으로 운용하여 원활한 자원의 공급을 보장하고자 했다.⁹⁴⁾ 그리고 적절한 시기와 장소를 선정하여 연합군의 일원으로 세력투사(Power Projection)를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표 3-3 참조>

(2) 독일의 해양전략

91) Ambrose, "Seapower in World Wars I and II," pp. 186-187.

92) Jock Garner, "The Battle of the Atlantic, 1941- the First Turning Point?" in Geoffrey Till, *Maritime Strategy and The Nuclear Age*, p. 111.

93) Gordon, "The British Navy, 1918-1945," pp. 173-177.

94) Steve T. Ross, *American War Plan* (New York : Garland Publishing, INC., 1992), p. 263. 미국은 연합국의 일원으로 참가하면서 영국의 해상교통로의 중요성과 더불어 석탄, 철강, 면화, 등 주요 원료가 대부분이 심각한 위기를 맞이할 것이라고 평가하고 특히 식량문제가 극에 달할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1936년 말에 히틀러는 세계 어느 국가보다도 강력한 육·공군을 보유하고⁹⁵⁾ 유럽지배능력을 갖추고 있었으며 세계지배를 위한 대전략(Grand Strategy)을 2단계로 분류하고 설정하였다. 그 첫 단계는 먼저 유럽을 지배하고 소련을 과멸시키는 것이며, 제2단계에서는 해외식민지를 점령하여 세계를 지배한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첫 단계의 실행을 위해 육군과 공군에 집중하였으나 세계지배가 식민지와 연관되자 가장 강력한 해군건설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면서 “Z”계획을 입안하였다. 강력한 해군건설을 위한 “Z” 계획은 9-10년에 걸쳐서 우선 전함, 항공모함, 순양함, 그리고 수많은 잠수함을 건설하는 측면에서 연구되어 왔다.⁹⁶⁾

이후 이런 히틀러의 해군세력 확장계획에 따라 발전을 거듭하고 있던 독일 해군은 1939년 9월 래더(E. Raeder)제독 지휘하에 전함부대와 그리고 도니츠(K. Doenitz)제독 휘하의 잠수함 부대로 나누어져 있었다. 그러나 그 수준은 영국함대와의 제한적인 결전을 기도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일전은 생각조차 할 수가 없었다.⁹⁷⁾

따라서 제2차 세계대전이 개시되던 해인 1939년 독일의 해양전략은 함대결전을 되도록 회피하고 현존함대전략을 고수하며 대영 통상과괴전에 집중하겠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것은 전형적인 대륙국가의 해양전략으로서 대양을 통제하여 대양을 사용하려는 계획보다도 영국의 해양사용을 거부하는 쪽

95) 이종학 외 3명, 『종합세계전사』, p. 247. 제1차 대전과 마찬가지로 대륙국가 독일은 지상군 우위 사상에 젖어 있었으며, 해군의 중요성에 대해서 비중 있게 고려하지 않았다. 그 이유 중 하나는 1935년에 이르러서야 겨우 베르사이유조약을 파기하고 재군비를 시작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1935년 독일해군은 대미 35%의 전력에 지나지 않았다.

96) S. G. Gorshkov, *The Sea Power of the State* (New York : Pergamon, Press, 1979), 국대원 역, 『국가의 해양력(1987)』 (서울 : 국방대학원, 1987), p. 145.

97) 그 이유는 전함과 같은 대형함정이 건조되는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Z계획의 완성시일도 1948년이 되어야 가능한 일이었다. 뿐만 아니라 독일해군이 자랑하던 U-보트도 아직도 충분히 준비되지 않고 있었다. 이정수, 『제2차세계대전 해전사』 (서울 : 남영문화사, 1981), pp. 39-40.

으로 그 목표를 정했던 것이다. 부연하면 히틀러는 해외자원을 얻기 위해서 영국함대와 결전을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영국의 해외자원수입통로를 거부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⁹⁸⁾ 이런 계획에 따라 독일은 잠수함과 수상함을 병행해서 통상과괴전에 주력하기로 결정하였다.⁹⁹⁾

요약하면 제2차세계대전을 일으키면서 독일해군은 영국 대함대와 해상결전은 회피하고 잠수함과 수상함을 공히 이용하여 통상과괴전에 주력한다는 해양 거부사상을 해양전략으로 내세웠다. 이는 대륙국가의 군사사상인 심장부이론에 심취한 독일수뇌부의 지상전 우위사상이 해양전략 수립에 절대적으로 반영된 결과였다.

<표3-3>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영·독 세력비교¹⁰⁰⁾

구 분	영 국	독 일
전 함	16	7
항공모함	7	0
중순양함	15	8(경·중순양함)
경순양함	39	
구축함	186	22
잠수함	69	56
세 력 비	4	1

출처 : 이정수, 『제2차 세계대전 해전사』, pp. 20, 23. 요약정리.

(3) 해전의 양상

제2차 세계대전에서 대소 전투가 있었지만, 대서양 전역의 해상작전은 크게

98) Ambrose, "Seapower in World Wars I and II," pp. 175-176.

99) Garner, "The Battle of the Atlantic, 1941- the First Turning Point.?" p. 111.

100) 영국의 경우 넬슨급, 퀸 엘리자베스급 전함을 합산 처리하였으며, 독일의 경우 의장중인 비스마르크함과 티피츠함을 포함한 수치임. 그리고 항공모함의 경우 독일은 건조 도중에 포기하여 숫자에서 제외하였음.

나르빅(Narvik)해전과 비스마르크 추격전, 노르망디상륙작전으로 대별된다.

먼저 나르빅해전의 배경에는 스웨덴과 노르웨이에 위치한 자원지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독일이 자원지대에 대해서 집착한 것은 제1차대전의 경험으로 그런 실책을 재현하지 않으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자원인 철광석의 경우 1/3이상을 북부 스웨덴의 광산으로부터 수입해야 했고, 원광석의 경우 철도로 스웨덴의 항구 룰레오(Lulea)까지 수송되고 그곳에서 선박으로 보트니아만과 발트해를 지나 독일로 수송되었다. 그러나 보트니아만은 12월부터 4월까지 결빙이 되므로, 독일이 필요로 하는 광석 수송은 노르웨이 리이드항을 통하여 수송할 수밖에 없었다. 영국 역시 자원 확보가 유리한 노르웨이가 중요했으며 독일에 필요한 자원유입을 적극적으로 저지하려는 의도 역시 있었다.¹⁰¹⁾

나르빅해전은 1940년 4월 8일부터 4월 10일 사이에 일어난 해전으로 나르빅 항구 주위뿐만 아니라 노르웨이전역에 걸쳐서 전개되었다. 과감한 기습과 적극적인 색출작전으로 영국을 비롯한 연합국 측은 항공모함 1척, 순양함 2척, 잠수함 6척, 해방함 2척, 구축함 9척의 손실을 입었지만 승리하였고, 독일은 순양함 3척, 구축함 10척, 잠수함 8척이 침몰되고 전함 4척, 순양함 3척이 손상되었다. 독일이 패배한 이유로는 부족한 함대세력으로도 함대를 집중시키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강력한 전함을 조기에 철수시키는 함대보존과 같은 소극적인 작전으로 일관했기 때문이었다. 1940년 6월말 독일해군은 잠수함을 제외하고 중순양함 1척, 경순양함 1척, 구축함 4척만이 작전할 수준으로 위축되었다.¹⁰²⁾

두 번째 해전은 열세한 수상함정세력으로 제한적인 결전마저도 시도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인식한 독일이 수상함정을 통상파괴전에 투입하기로 결정하면

101) 해군대학, 『세계해전사』, p. 225.

102) 상계서, pp. 225-232.

서 시작된 해전이다. 수상함정을 통상과괴전에 투입한 이유는 작전의 성공률을 높이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던 것이다.

비스마르크함¹⁰³⁾추격전은 1941년 5월 22일 영국 정찰기가 노르웨이 베르겐 남방의 콜스 피올드에서 출항 준비중인 대형함을 발견하면서 시작되었다. 이때 영국의 11개 수송선단이 근해에서 항해 중에 있었고 최소한 2개의 선단이 이 대형함정과 조우할 가능성이 높았다. 해양국가인 영국은 자원을 해외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탓에 통상보호 차원에서 이 대형함정을 침몰시키기 위해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다. 이런 영국수뇌부의 결정에 따라 총3개 함대가 이 추격전에 참여했다.¹⁰⁴⁾

막강한 영국세력에 비해 독일은 보조함정들의 손상으로 비스마르크와 프린츠 오겐(Prinz Eugen)함만이 통상과괴전에 참가했다. 5월 24일 일차로 영국함대와 독일의 통상과괴부대간에 일전이 벌어져 전함 비스마르크의 위력을 과시하는 첫 계기가 되었다. 1차 교전에서 전함 후드가 침몰하고 프린스 오브 웨일즈함이 심각한 손상을 입었다. 이런 피해가 발생한데는 영국함대의 자만심과 더불어 비스마르크를 수색하기 위해 세력을 분할하여 운용하였기 때문이었다.

강력한 영국함대의 추격을 맞아 비스마르크는 통상과괴전을 포기하고 남진하였으며 남진 도중 다시 영국 정찰기에 발견되었다. 영국항공모함 아크 로얄(Ark Royal)함에서 발진한 항공기에 의해서 타기에 손상을 입은 비스마르크는 영국수상함의 어뢰공격을 받아 결국 침몰되었다. 이로서 독일은 현존함대 전략을 고수할 세력이나 통상과괴전을 수행할 자산이 급격하게 줄어들었

103) 이정수, 『제2차세계대전 해전사』, p. 64. 구경 15인치 주포 8문, 5.9인치 부포 12문, 최대속력 30노트, 42,000톤의 비스마르크호는 공격력과 방어면에서 무적의 초대형 전함이었다. 당초에 히페, 샤론호르스트 및 그나우제와도 회동할 예정이었다.

104) 상계서, p. 65. 다수의 전함과 순양함, 구축함 등이 참가하였고 항공모함이 역시 이 작전에 참여했다

다.¹⁰⁵⁾

세 번째는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들 수 있다. 1942년 연합국측은 볼레로계획에 따라 전투력을 영국으로 집결시키고 1943년 오버로드계획에 따라 대륙침공을 위한 기본계획을 추진하였으며 1944년 냅툰계획으로 상륙작전을 위한 세부작전계획을 완성시켰다. 1944년 6월 6일에 게시된 노르망디상륙작전은 연합국 병력 32만 7천명과 17,870대의 항공기, 그리고 동원선박을 비롯한 해군함선이 1,123척이 참가한 대규모 작전이었다. 이에 맞선 독일은 58개 사단 수준의 병력과 390여대의 항공기, 어뢰정 일부가 전부였다. 상륙작전에서 연합국은 전세를 전환시킬 정도로 승리를 이루었고 해안방어보다는 서부전선에 치중한 독일은 치명적인 피해를 입었다.¹⁰⁶⁾

노르망디 상륙작전은 제해권을 장악한 국가가 제해권을 바탕으로 동맹체제를 확고히 유지하여 동맹국으로부터 전쟁력을 지원받고 대륙국가의 허점에 자유자재로 접근하여 전승을 달성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뿐만 아니라 계속 주장되어온 상륙작전 무용론을 일소시킨 점도 큰 성과라 하겠다.

(4) 잠수함전

대륙국가에서 잠수함의 전형적인 운용은 적 상선대에 대해 직접 공격하는 통상파괴전이며, 부가적 운용으로 적함대에 대한 공격이다. 그러나 전쟁초기에 독일은 잠수함을 어떤 식으로든 운용하지 않고 소극적인 작전으로 일관했는데 이는 1917-18년 사이 U 보트작전을 실패한 작전으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이었으며 해군수뇌부는 잠수함보다는 수상함 부대를 더 선호했다.¹⁰⁷⁾ 그러나 생각보다 일찍 도래한 전쟁으로 달리 대안이 없었던 독일은 잠수함 건조에 박차를

105) 해군대학, 『세계해전사』, pp. 234-239.

106) 상계서, pp. 253-267.

107) Lautenschläger, "The Submarine in Naval Warfare 1901-2001," p. 259.

가할 수밖에 없었다.

개전시에 독일이 보유한 잠수함은 56척에 지나지 않았으나 개전 후 무역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던 영국의 통상을 분쇄하기 위해 독일은 함정건조계획을 변경하여 U보트 건조에 집중하였다. 이런 성과에 힘입어 1941년 6월에 U보트의 숫자가 2배로 증가되었으며 프랑스의 서해안을 잠수함의 기지로 삼을 수 있게 됨에 따라 그 전과의 승수 효과를 보게 되어 매월 평균 200,000톤의 영국 상선손실이 600,000톤으로 증가되었다. 연말까지 638척의 상선이 침몰하였으며 총계 6,000,000톤의 상선을 상실해<그림3-2참조>, 전쟁 전반기에 영국은 최대의 위기에 직면하였다.¹⁰⁸⁾

1942년 독일의 U보트 작전은 전성기를 구가했는데 이는 새로운 전법 「이리떼(Wolf pack)작전¹⁰⁹⁾」 개발에 기인했다. 그러나 1943년은 독일잠수함의 수난기였다.

카사블랑카회담에서 연합국은 영국 등과 같은 해양국가의 대서양횡단 보급문제를 논의하고 추축국에 대한 전쟁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U보트문제를 맨 먼저 처리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다. 이에 따라 선단의 호위전술도 많이 개량되었고 대잠전이 크게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그리고 1944년 6월 역사적 노르망디상륙작전으로 프랑스가 연합국의 수중으로 넘어가자 U보트는 갈 곳을 잃고 사실상 작전은 종료된 것이나 다름없었다.¹¹⁰⁾ 전쟁은 승리로서 종결되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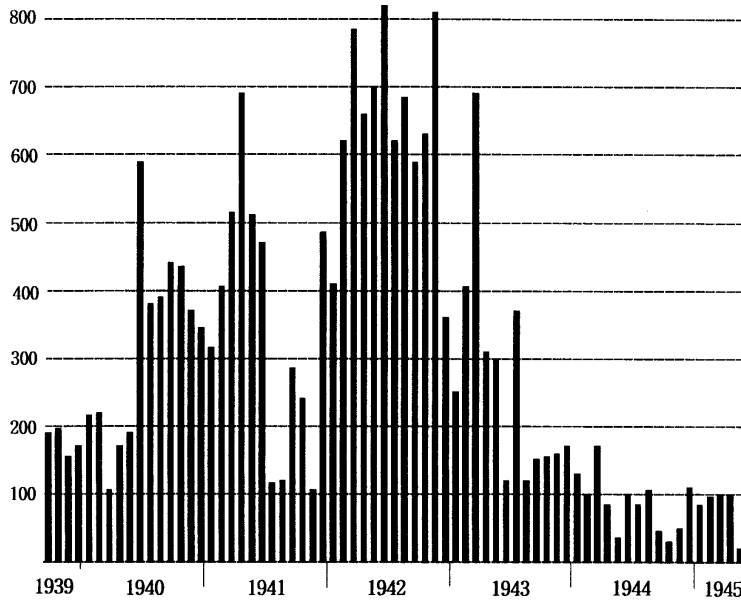
108) 연합국은 수리능력은 손실률을 보전할 수준이 되지 못했다. 1941년 3월만 하더라도 약 1,700,000톤의 상선이 수리를 하지 못하고 대기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정수, 『제2차세계대전 해전사』, p. 198.

109) 이 새로운 이리떼 공격전술은 10척, 내지 20척의 U보트들이 상선이 지나갈 만한 해역일대에 산개해 있다가 일단 호송선단을 발견하게 되면 즉시 공격에 나서지 않고 접촉장소, 호송선단의 규모, 편성, 침로, 속력 등을 사령부에 보고한다. 각 해역에 산재한 잠수함에 의해 보고 받은 되니츠는 할당해역의 호송선단과 조우하도록 명령을 내리고 원거리에서 표적을 접촉유지하고 있다가 어두워지면 일제히 달려들어 공격을 감행하는 전법이다. 상계서, p. 199. ; Keegan, *The Price of Admiralty : The Evolution of Naval Warfare*, p. 264.

110) 이정수, 『제2차세계대전 해전사』, p. 201.

만, 연합국과 지중해국가의 상선 중 격침된 총수는 합계 4,770척(21,140,000톤)에 이르렀는데 이 중에서 2,770척이 잠수함의 공격에 의해 상실되었다.¹¹¹⁾

<그림3-2> 독일잠수함에 의한 월별 연합국상선 격침 톤 수(단위: 천 톤)



출처: E. B. Potter ed., *Sea Power-A Naval History*, p. 53.

반면에 해양국가인 영국은 잠수함을 비신사적이고 정당하지 못한 무기체계로 간주했는데 이는 제1차대전의 교훈을 망각한 결과였다. 영국은 여전히 수상함 위주의 함대결전사상으로 잠수함은 수상함정결전에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았다. 이렇듯 영국이 수상함 위주의 사고를 한 이유는 음탐기(Asdic)의 개발과 그 능력을 지나치게 과신했으며, 더불어 영독간 해군협약(Naval

111) 상계서, p. 197.

Agreement)에서 독일 잠수함 숫자를 충분히 제약했다고 믿었던 탓을 들 수 있다.¹¹²⁾

함대결전의 보조수단으로 여긴 영국함대는 잠수함을 이용하여 기뢰를 부설하여 노르웨이를 침공하는 독일함정에 피해를 주는 첫 전과를 1940년에 올렸을 뿐 그다지 큰 성과를 이루지는 못했다.¹¹³⁾ 그리고 영국은 1941-1942년 사이에 지중해에 전략물자 수송을 위해 잠수함을 이용한 정도였다.¹¹⁴⁾

(5) 분석

독일은 예견했던 것보다 빨리 도래한 전쟁 때문에 건조중인 전함사업을 모두 중지하고 잠수함 건조에 전력을 다 하려했으며, 함대결전을 되도록 회피하고 대영 통상파괴전에 집중하겠다는 해양전략을 수립했다. 실제로 전쟁초기에 2배로 증가한 잠수함의 효과는 연합국작전을 대단히 곤란하게 만들었다.

영국은 함대세력을 온전하게 유지하고 결전에 대비하며 적함대를 적극적으로 색출하여 격멸한다는 함대결전과 통상보호전을 해양전략으로 채택했다. 그리고 제해권을 적극적으로 유지하면서 상륙작전을 공세적으로 실시하여 그 세력투사의 효과를 극대화하려 했다.¹¹⁵⁾

그러나 잠수함의 효용성을 계속적으로 부인하고 잠수함을 비신사적이고 정당하지 못한 무기체계로 간주한 영국은 전쟁도중 패배직전까지 물리게 되었다. 그만큼 독일 잠수함의 통상파괴전은 효과적이었으며, 이는 영국이 제1차대

112) William Murray and Allan Reed Millett, *Military Innovation in the Interwar Period* (New Yor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8), 허남성·권영근 공역, 『제1,2차 세계대전사이의 군사혁신(상)』 (서울 : 국방대학교, 2002), p. 268.

113) Chant, *The History of The World Warships*, p. 390.

114) *Ibid.*, p. 390. Porpoise급 잠수함이 주로 이런 임무를 부여받고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115) Ambrose, "Seapower in World Wars I and II," pp. 186-187.

전에서의 U보트 교훈을 망각한 결과였다. 이런 영국의 실수는 여전히 수상함 위주의 함대결전사상과 해상에서 우월주의에 빠져있던 결과라 할 수 있다. 개전시에 독일보다 더 많은 잠수함을 보유하고도 영국의 잠수함전과는 그리 많지 않았다는 사실은 그 운용개념이 독일과 완전히 달랐기 때문일 것이다.

독일은 잠수함을 이용한 통상과괴전에서 독특한 전술적 기법을 개발하여 놀라운 결과를 일구어 냈고 이런 배후에는 기술혁신이 뒤따랐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스노켈 항해를 개발하여 수송선단에 가까이 접근해서 접촉되지 않고 과감한 공격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¹¹⁶⁾ 그러나 우수한 전과에 불구하고 전승을 이루지 못한 이유는 지상전 우위사상과 더불어 해상에서 완전히 영국을 고립시키지 못한데 있다.

2. 태평양 전역

(1) 일본의 해양전략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해양국가 일본은 1907년 제국방위구상을 제정하여 러시아, 프랑스와 함께 미국을 가상적국의 하나로 일찍이 상정하였으며,¹¹⁷⁾ 해양국가의 해양전략사상인 함대결전론에 기초하여 1927년까지 전함 8척, 순양전함 8척, 순양함 22척, 구축함 75척, 잠수함 80척으로 구성되는 八八艦隊 건설을 목표로 예산을 배정하였다. 그러나 워싱턴 군축회의에서 영국, 미국, 일본간의 주력함과 항공모함 비율을 5:5:3으로 정하자 제국국방방침을 개정하여 제1가상적을 미국으로 정하고 항공모함 4척, 대형 순양함 12척, 중형 순양함 12

116) Chant. *The History of The World Warships*, p. 387.

117) 정호섭, “太平洋戰爭時 日本海軍의 失錯,” 『해양전략』 제106호 (2000. 3), pp. 22-23.

척, 구축함 96척, 잠수함 65척, 보조함공모함 2척, 기뢰부설함 2척으로 전력규모를 축소하고 만다.

<표3-4> 군축회담 직후(1922년) 양측 세력비교

국 가	미 국	일 본
합 중		
전 함	526,000	301,000
항공 모함	13,000	15,000
순 양 함	183,000	142,000
구 축 함	363,000	65,000
잠 수 함	49,000	24,000
합 계	1,134,000	547,000

출처 : 이정수, 『제2차세계대전 해전사』, p. 25.

6함의 전력으로 어떻게 10함의 전력을 격파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일본군부의 고민이었는데, 그 해결책으로 일본은 훈련을 보다 강화하고 잠수함 부대의 증강 및 해군항공전력을 신장하는 것으로 신경을 집중하였으며 축차적인 공격형태인 격격점감(激擊漸減)이라는 작전을 구상하였고, 세부적으로 3 단계¹¹⁸⁾로 계획하였다.

118)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잠수함 함대를 미함대의 소재지에 파견하여 그 동정을 감시하고 미함대가 출격할 경우에는 이것을 추적하여 동정을 명확하게 파악하는 한편 반복적으로 습격하여 적 전력을 감쇄시킨다. ② 기지 항공부대를 남양제도(구 일본 통치하의 남양군도 즉 마리아나 케롤라인, 마셜군도)에 전개하고 미함대가 그 세력권내 진입하면 육상항공부대와 항공모함 탑재 항공부대가 협력하여 항공공격을 가함으로써 적 세력을 더 한층 감쇄시킨다. ③ 적 함대가 결전장에 도착하면 고속 전함으로 호위된 어뢰전대가 야간 어뢰공격을 감행하여 적 함대에 심대한 타격을 주고 야간에 이어서黎明 후에는 전함부대를 중심으로 전 병력을 집결하여 결전을 수행함으로써 미함대를 완전 격멸한다. 平間洋一, “建艦計劃から見た比較,” 『海上防衛論』 入門, 제1회 日本海軍編,” p. 117. 정호섭, “太平洋戰爭時 日本海軍의 失錯,” p. 25. 재

1936년 1월 일본은 함대건설에 박차를 가하였으며,¹¹⁹⁾<표3-6참조> 그리고 1941년 11월 6일 미국과의 협상이 결렬되자 일본은 일왕의 지휘하에 대본영을 구심점으로 태평양전역에 대한 치밀한 합동작전을 계획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일본은 지상전략과 해양전략을 2단계로 나누어 기획하였다.¹²⁰⁾

제1단계에서는 진주만 방면으로 연합함대세력으로 미국태평양함대 주력부대를 격파하고 대만을 기지로 삼은 일본은 해군항공병력으로 필리핀의 미 공군병력을 격파하며, 루손섬의 공략을 도모하고자 했다. 그리고 지상병력으로 말레이반도를 점령하고 싱가포르와 동인도 제도를 공격하여 유전지역을 확보하고자 했다. 즉, 부존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해양국가의 현실을 감안하여 자원확보에 전력을 집중하려는 계획이었다.<표3-5참조> 제2단계작전에서는 점령지역의 방어를 강화하면서 남방자원을 취득하여 자급자족체제를 확립하며 원활한 해상교통로를 확보하려한 것이 핵심이다.

그리고 잠수함을 이용하여 적함대에 대한 감시정찰을 실시하고 연합함대 일부세력을 이용하여 태평양, 인도양 방면에서 적의 전진기지를 기습파괴하며 미 해군의 일본본토 기습을 방지하는 노력에 집중하고자 했다. 만일의 경우 미국함대가 본토로 접근 시 잠수함으로 선결전을 시도하고 항공기를 이용한 협공을 가하며, 감소된 적에 대해서 일본 전함대 세력을 집결시켜 미함대의 완전격멸을 의도했다.

일본의 해양전략을 요약하면 잠수함을 이용하여 조기경보체제를 유지하고 함대세력을 집중하여 주력함정간의 결전으로 해상통제를 달성한 후 식민지의 안정적인 확보를 도모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태평양에서 조기에 결전을 시도하여 미국과의 협상카드로 활용하고자 했는데 이는 여지없이 빈약한 자원에

인용.

119) 상계서, p. 20.

120) 우학선 편저, 『태평양전쟁』, pp. 23-29.

근거한 전략으로 장기소모전에서 일본이 승리할 확률은 매우 저조하다는 것을 고려한 것이었다.¹²¹⁾ 따라서 열세한 함대세력으로 일본 해군은 함대결전을 추구하였을 뿐 아니라 전술적인 승리로 전략적인 승리를 일구어 낼 수 있다고 평가하고 해양전략을 수립하였다.

<표3-5 > 개전 전 일본의 해외자원의존도

품목	국산(천톤)	수입(천톤)	수출(천톤)	해외의존도(%)
주철	568	3,773	-	87
강철	5,266	672	529	3
구리	75	71	15	43
흑연	9	97	-	43
아연	20	57	-	92
주석	2	5	-	71
망간	36	80	3	71
알루미늄	9	12	1	55
니켈	-	3	-	100
귀금속	1	2	-	67
석유	308	3,801	45	92
목화	-	843	24	100
양모	-	108	-	26
펄프	786	277	-	26
고무	-	63	1	100

출처 : 外山三郎, 『日清, 日露, 大東亞戰爭』(東京 : 原書房), p. 565. 정호섭, “太平洋戰爭時 日本海軍의 失錯,” p. 15. 재인용

121) 外山三郎, 『日清 · 日露 大東亞海戰史』, p. 337. 정호섭, “太平洋戰爭時 日本海軍의 失錯,” p. 33. 재인용. 야마모토 일본연합함대사령관은 조기결전에 대해서 강한 집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했다. “미함대가 하와이에 진출하여 對日전쟁준비를 하고 있을 때 이를 그대로 두고 장대한 작전선을 갖는 남방 점령작전을 수행하는 것은 자신이 없다. 언제 측면이 돌파될지 모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南方作戰이 절대적이라면 진주만 공격은 절대 불가결하다. 그뿐 아니라 개전 후에 彼我的 전력차가 급속하게 벌어질 것을 감안할 때 조기에 공격기회를 놓치고 나면 기회는 다시 또 찾아오지 않는다. 이 작전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절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가장 염려되는 기상의 장애도 극복 가능하다.”

(2) 미국의 해양전략

제2차 세계대전에서 미국은 대서양과 태평양전역에서 각기 다른 해양전략을 수립하였다. 대서양에서는 미국은 해양국가의 해양전략을 수립하였고 태평양에서는 대륙국가로서 해양전략을 수립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그 적용의 시점에서 대서양을 우선시 하였으며 태평양은 대서양작전이 어느 정도 종결이 된 후 이행하고자 했다.¹²²⁾

태평양에서 대륙국가 미국의 해양전략은 오렌지계획하에 구체화되었다. 오렌지계획(Plan Orange)¹²³⁾은 미국 본토, 그리고 하와이에서 서태평양까지의 거리, 군사적인 능력, 그리고 섬나라 일본의 고립적인 지리적 특성, 즉 해상교역에 의존한다는 전략적 취약점을 고려하여 입안되어졌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이 계획은 해·공군력을 바탕으로 초기에 빼앗긴 필리핀, 괌, 등의 영토를 회복하고 일본의 해상교통로를 제압하여 자원이 일본 내로 유입되는 것을 근절하는 동시에 공습에 의해 일본의 산업기반을 파괴하며 해상봉쇄를 실시하여 연안항로조차도 차단함으로써 일본을 패배시키고자 했다. <표 3-6참조> 그리고 지리적으로 중요한 지점을 확보하기 위해 미해군은 상륙작전 교리를 적극

122) 황규원, “대륙국가와 해양국가의 해양전략,” (석사학위 논문, 국방대학원, 1990), p. 49.

123) Ross, *American War Plan 1919-1941*, pp. 71-75. 요약정리. 미국은 1922년부터 일본과의 전쟁을 가정하여 전쟁계획(오렌지 계획)을 준비하고 있었다. 1938년에 작성된 오렌지계획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가정을 근거로 작성되었다. “그 첫째는, 미국과 일본의 전쟁 원인은 일본이 극동지역의 육지, 인구, 자원을 지배함으로써 일본의 국가적 위대함을 과시하려는 기도에서 기인한다. 둘째, 일본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자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필리핀과 괌에 있는 미군기지를 제거함으로써 일본 주변해역에서 미국의 힘을 축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식할 것이다. 자국의 사활적인 이익이 걸린 전쟁을 위해 모든 전쟁 잠재력을 동원하는 일본은 준비가 되면 기습을 시도하여 서태평양을 쉽게 장악할 것이나 미국의 서해안까지 진출하여 전쟁을 수행할 능력은 없다. 일본은 미국민이 자국의 사활적인 이익이 걸려있지 않은 먼 극동 지역에서 장기전을 수행한다는 점에 염증을 느껴 일본이 전쟁 초기에 거둔 이익을 수호하며 평화협상을 요구할 것이라는 신념 하에서 전쟁을 가능한 지연시키려 할 것이다. 셋째, 이런 일본의 믿음은 오판이라는 것이 증명된다.”

적으로 발전시켜 도약이론(Island Hopping)을 구체화하여 전진기지를 확보하는 상륙돌격이라는 독특한 방식을 개발했다.¹²⁴⁾

<표3-6> 태평양전쟁중 미·일 함정전력 비교

구분	개전시 보유수		전쟁중 건조척수		총계(척)	
	미국	일본	미국	일본	미국	일본
정규항모	7	6	18	5	25	11
특설항모	1	4	86	10	87	14
전함	17	10	8	2	25	12
중순양함	18	18	15	0	33	18
경순양함	19	20	33	5	52	25
구축함	175	112	352	55	527	167
잠수함	111	65	203	126	314	191

출처 : 平間洋一, “建艦計劃から見た比較,” 『海上防衛論』入門, 제1회 日本海軍編, p. 117. 정호섭, “太平洋戰爭時 日本海軍의 失錯,” p. 21. 재인용.

뿐만 아니라 잠수함을 적극적으로 운용하기로 방침을 정한 미해군은 광대한 태평양을 통과해야 하는 긴 병참선 때문에 일본이 대단히 취약하다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하와이와 호주에 이르는 해상교통로에서 잠수함에 의한 통상과괴전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자 했다.¹²⁵⁾

요약하자면 일본에 대항한 미국은 대륙국가로서의 해양전략을 구사하고자 했으며, 철저한 준비아래 태평양에서 일본을 붕괴시키기 위한 해양거부적 해양전략을 입안하였던 것이다. 환언하면 미국의 해양전략은 취약한 일본의 지리적인 환경을 고려 잠수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통상과괴전에 전념케하고 확

124) Ckark G. Reynolds, *Command of the Sea* (Malabar, Florida : Robert E. Krieger Publishing Company, INC., 1974), p. 521.

125) *Ibid.*, p. 521.

보된 교통로를 이용하여 상륙작전을 공세적으로 구사하기로 한 것이 골자이다.

(3) 해전의 양상

태평양전쟁이 개시되면서 일본은 함대간 해상결전과 단기속전속결 전략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기 시작했는데 그 초반기 작전이 진주만 기습과 미드웨이침공작전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두 작전은 적 주력함대에 대한 선제기습과 유인격멸이라는 전형적인 함대결전의 형태를 취했다. 일본이 기습공격과 함대결전을 추구한 것은 전면전이 아닌 제한전(Limited War)을 위한 것이며 이는 전쟁을 조기에 수습하고 대미협상을 유리하게 이끌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다.¹²⁶⁾

1941년 12월 7일 해양국가 일본은 함대결전사상과 속전속결전에 기초하여 미함대세력을 격멸하기 위해 진주만을 기습했다. 이 기습은 역사적으로 전례가 없는 대단한 전술적인 성공이었다. 미국은 전함 4척, 기뢰부설함 2척이 침몰하고 전함 4척, 경순양함 3척, 구축함 3척, 수상기모함 1척이 손상되는 피해를 입었다. 그리고 항공기 188대가 대파되었고, 2,502명의 전사자와 1,382명의 전상자가 발생했다.¹²⁷⁾

1941년 12월 10일 말레이반도의 쿠안탄 외해에서 벌어진 해전에서 일본해군은 영국전함 프린스 오브 웨일즈(Prince of Wales)와 레팔스(Repulse)를 격침시키고 승리했다.¹²⁸⁾ 이로써 제1단계 작전이 완료되면서 필리핀, 말레이 및 란영 동인도제도의 공략이 거의 종료되고 일본육군은 불령 인도지나로부터 버마까지 진출하였다.¹²⁹⁾

126) 정호섭, “太平洋戰爭時 日本海軍의 失錯,” p. 35.

127) 해군대학, 『세계해전사』, pp. 283-297.

128) 이정수, 『제2차세계대전 해전사』, pp. 124-129.

129) 상계서, p. 154.

제1단계에서 제2단계로 전환하는 이 시기에 일본은 M.O. 작전과 M1작전을 계획하였다. M.O.작전에 따른 해전이 산호해해전(1942년 5월 5-11일)이다. 산호해해전에서 미국은 항공모함 1척, 유조선 1척, 구축함 1척 및 항공기 66대의 손실을 입은 반면 일본은 개장항공모함 1척, 구축함 1척, 기타 소형함정 3척, 항공기 38대를 잃어 전술적인 승리를 이루었다. 산호해해전 이전까지 승승장구하던 일본이 결국 이 해전을 통해 그 작전의 속도를 늦추어야 했으며 결국 강력한 미국의 저항에 부딪혀 M.O.작전을 연기할 수밖에 없었다. 결과적으로 일본은 전술적으로는 승리했지만 전략적으로는 패배를 했던 것이다.¹³⁰⁾

M.O.작전의 연기에도 불구하고 일본해군은 알래스카 방면의 양동작전과 미드웨이 침공이라는 M1작전을 계획하였다. 즉 일본은 미드웨이를 침공하여 중간기지로 삼고자 했으며, 미드웨이 침공사실이 알려지면 미국이 반드시 반격할 것이므로 이때 우세한 함대세력으로 기다리고 있다가 미 주력함대를 중간지점에서 함대결전으로 격멸코자 하는 의도를 가진 작전이었다.¹³¹⁾ 1942년 6월 7일에 발생한 미드웨이해전에서 정보수집상의 문제, 보안상의 허점 등으로 일본은 4척의 항공모함, 1척의 중순양함, 2,500명의 인명, 300대 이상의 함재기를 잃고 패전했다. 이에 반해 미국은 항공모함 1척, 구축함 1척, 307명의 인명, 147대의 항공기만 손실을 입었을 뿐이었다.¹³²⁾

다음으로 일본과 미국을 포함한 연합국간에 치열하게 전개된 곳은 과달카날 전역이었다. 과다카날 전역에서는 사모섬해전(1942년 8월 7-10일), 동부 솔로몬해전(1942년 8월 24-25일), 과다카날해전(1942년 10월 12-15일)이 있었다.

130) 상계서, p. 166.

131) 해군대학, 『세계해전사』, p. 299. 미드웨이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곳으로 하와이 서북서 1,150마일 지점에 위치하고 있던 까닭에 미국에게는 일본군의 동태를 조기경보 할 수 있고 하와이의 관문이나 다름이 없었다. 이점을 노리고 미드웨이를 공격하면 미태평양 함대가 유인될 것이고, 그래서 미 해군을 격멸시키겠다는 것이 야마모토 제독의 생각이었다.

132) Gordon Prange, *Miracle at Midway* (New York : Viking Penguin, 1981), p. 396. cited by Andidora, *Iron Admiral*, p. 110.

사모섬 해전에서 일본은 야간기습을 통해 미국 수상함세력 4척을 격침시키고 완승을 거두었다. 동부솔로몬해전은 과다카날섬의 제2차 탈환과 동시에 미국의 기동부대와 결전을 시도하고자 한 일본해군과 연합국간의 대결이었다. 이 해전에서 미국은 항모 1척이 대파되고 항공기가 20대 손실된 반면, 일본은 항모 1척, 구축함 1척이 침몰되고 2척이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다. 일본의 제2차 탈환작전 역시 실패하였다. 과다카날 해전은 4일간 총 3차에 걸쳐서 접전을 벌이면서 진행되었지만 결국 일본은 전력의 열세를 인정하고 1943년 2월 1일에서 8일까지 주둔 병력을 철수시키고 만다.

남방지대로부터 원활한 자원획득을 위해 일본은 과다카날 탈환작전에 전력을 집중하려 했으며 주력함대간의 결전시도와 야간작전을 감행할 의지를 지니고 있었다. 그리고 일본은 과다카날섬의 지상군을 지원하기 위한 도쿄특급¹³³⁾과도 같은 궁색하고 어려운 작전을 실시했다.¹³⁴⁾ 미국은 항공모함을 적절하게 운용하여 과다카날섬을 획득하고 방어할 수 있었으며 남태평양의 해상교통로를 원활하게 보호할 수 있었다.

과다카날전역에서 승리한 미국은 무궁무진한 자원과 산업력으로 전쟁물자를 적시에 보급하였으며 1942년 6월 미드웨이해전 승리 이후 과감한 해상작전을 전개하고 자원빈국인 일본에게 더욱 더 가혹한 소모전을 강요했다. 이후 미국은 솔로몬제도까지 진격하는데 1년이 소요되었는데 이 기간 동안 많은 해전과 항공전을 전개하여 일본의 전쟁자원을 고갈시키면서도 자국의 해군력을 강력한 산업력으로 즉각 증강해나갔다.¹³⁵⁾ 국내적으로 안정되어 있었고 국경을

133) “도쿄특급”(Tokyo Express)이라 불리는 이 작전은 라바울에서 과다카날까지의 좁은 접근로를 이용해 순식간에 진격해 가는 야간작전으로 병력과 보급품을 라바울에서 구축함에 싣고 고속으로 과다카날에 접근하여 지상 병력을 지원한 다음 미항공기의 공습을 피해 일출이 되기 전에 달아나는 방법이었다. 그리고 구축함보다 규모가 큰 일본함정들은 동일한 접근로(slot)를 이용하여 헨드슨비행장과 주변 외곽방어진에 대해서 포격을 가하면서 보급작전에 일조하였다. Andidora, *Iron Admiral*, pp. 112-113.

134) 해군대학, 『세계해전사』, pp. 315-330.

연한 대치 관계가 없던 대륙국가인 미국에게는 장기전일수록 유리했던 것이다
다음은 필리핀해전(1944년 6월 19일)으로 일본은 1944년 3월말에 함대결전을 위한 항공모함중심으로 새로운 편성을 단행하고 보로네오 중간에 위치한 타위타위(TawiTawi)를 거점으로 미함대와 결전을 시도했다. 그러나 열세한 함대세력으로 대패한 일본은 해상통제권을 완전히 상실했다. 이후 미국은 차기작전인 필리핀을 효과적으로 공격할 수 있었으며 일본의 본토와 남방자원지대간의 해상교통로를 크게 위협할 수 있었다.¹³⁶⁾

잇따른 패전을 거듭한 일본해군은 「첩호작전(捷号作戰)」¹³⁷⁾을 구상하여 방어전에 들어갔다. 1944년 10월 17일 미국의 선견부대가 레이테만에 상륙하자 곧이어 첩호작전이 개시되었고 레이테해전이 시작되었다. 시부얀해, 수리가오해협, 엥가노갑 및 사메르 등 4곳에서 전개된 레이테 해전은 1944년 10월 23일부터 26일까지 만 4주야에 걸쳐 전개되었으며 처참한 일본의 패배로 끝났다. 레이테해전의 승리로 미국은 태평양의 제해권을 완전히 획득하였으며 일본의 해상교통로를 전적으로 차단하여 일본이 궁핍으로 전쟁을 계속 수행할 수 없도록 궁지로 몰아넣었다. 그리고 이오지마 및 오키나와 상륙작전을 과감하게 실행하여 미국은 전쟁전반에 걸친 작전을 성공적으로 완수했다.¹³⁸⁾

(4) 잠수함전

워싱턴 군축회담이후 일본은 결전사상에 젖어 대미 전력보완의 대안으로 잠

135) 상계서, p. 331.

136) 전술적으로 일본 해군은 「아우트레인지전법(Outrange)」을 사용했는데 장거리 비행으로 인한 피로도 증가와 더불어 미속한 조종사의 능력으로 인해 고공에 대기하고 있던 미해군 조종사의 적수가 되지 못했다. 상계서, pp. 331-339.

137) 상계서, p. 341. 첩1호는 필리핀제도 방어, 첩2호는 대만, 오키나와와 남부 일본의 방어, 첩3호는 큐슈, 시코쿠, 혼슈를 포함한 일본본토 방어, 그리고 첩4호는 일본본토 북부와 북해도 방어로 규정하고 있었다.

138) 상계서, p. 352.

잠수함을 중요시했다. 과거 독일 U 보트 7척을 전리품으로 획득한 일본은 각종 실험과 연구를 통해 단기간 내 함대결전에 필요한 어뢰를 발전시키고 야간 공격과 같은 전술 발전에 매진했다. 그러나 런던군축회의에서 잇따른 잠수함의 수적 제한으로 일본은 잠수함 탑재 항공기를 개발하는 등 무기체계 성능향상에 주력했다. 그러나 수상함정 결전사상에 젖어 있던 일본군부는 잠수함을 전함의 보조전력으로 간주하여 적의 항모기동부대나 상륙부대를 공격하기 위해 경계가 삼엄하고 공간이 협소한 좁은 해역에 반격저지 전력으로 투입함으로써 다수를 희생시켰다.¹³⁹⁾

주력전함과 같이 행동하기 위해서는 일본 잠수함은 고속과 장대한 항속력이 필요하였으며, 이를 위해서는 마력수가 높은 대형 엔진을 장착할 수밖에 없었다. 이 때문에 자연히 소음이 커지고 잠수함의 생명인 은밀성이 손상 받아 적 측에게 쉽게 탐지 당하여 다수 침몰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¹⁴⁰⁾

상기 기술적인 오류와 더불어 일본해군의 잠수함의 운용상 오류는 적 잠수함공격에 대한 해상교통로 보호라는 측면도 경시했지만 반대로 잠수함 본연의 임무인 통상파괴전에도 관심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다는 사실이다.¹⁴¹⁾ 이러한 연유로 일본해군은 전략적 자산인 잠수함을 수상함대의 결전을 지원하는 보조 수단으로 잘못 운용하면서 잠수함 특유의 행동의 자유를 박탈하고 무익하게 소모시킨 것이다.¹⁴²⁾ 이런 일본의 진부한 잠수함전사상은 깨멸되는 그 순간까

139) 정호섭, “太平洋戰爭時 日本海軍의 失錯,” pp. 26-27.

140) 여기에 추가해서 일본해군은 잠수함 건조에 있어서도 단일 종류의 효율성보다도 수송용 잠수함, 수상기 탑재 잠수함 등 총 8종류, 15개 함형에 이르는 많은 종류의 잠수함을 개발하는데 열중하여 군수지원상의 어려움과 잠수함 건조시기의 지연 등을 자초하는 전략적인 우를 범하였다. 상계서, p. 41.

141) 일본해군은 미국이 거대한 생산 잠재력을 이용하면 상선의 건조가 용이하고 또한 자급자족이 가능한 대륙국가이기 때문에 해상교통로의 타격이 전쟁전반에 별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미해군의 주력부대인 항공모함과 전함을 격침시키면 대형 함정과 승조원을 단시간내 보충하는 것이 어렵다는 생각에 일본해군은 전함과 항공모함을 목표로 함대결전을 하고자 했던 것이다. 상계서, p. 39.

142) 도야마 시부로 교수는 일본해군이 무제한 잠수함전을 경시한 이유를 다음과 같

지도 계속되었다.

실제 일본 잠수함의 운용사례를 살펴보면, 일본잠수함은 첫 1년간 진주만 기습, 말레이해전, 남방제도 공략작전, 산호해해전, 미드웨이해전 등의 제작전에 일본연합함대의 보조수단의 임무를 띠고 참가하였다. 해양국가의 잠수함 운용상 주임무인 연합함대의 작전을 보조하면서 이따금 틈을 내어 통상파괴전을 수행하는 것이 고작이었다. 그러나 틈틈이 행한 작전이었지만 그 효과는 대단했다. 태평양전쟁의 첫 1년간에 일본잠수함에 의해 격침된 연합국함정은 9척에 총 59,825톤이었으며, 손상된 함정은 총 9척이었다. 한편 인도양, 북미의 서안, 오스트레일리아의 동안 등지에서 통상파괴를 틈틈이 벌인 결과 1942년 말까지 거둔 성과는 격침, 파괴를 합하여 대소선박 130척을 헤아리며 총 톤수는 800,000여 톤에 달하였다.¹⁴³⁾

미드웨이해전을 기점으로 미해군이 솔로몬 해역으로 전개하자 미·일 양군의 전 전력이 이곳에 집중되었을 때도 일본은 미국의 긴 보급로인 동맥을 차단하지 않았으며 잠수함의 임무와 거리가 먼 수송작전에만 치중하였던 것이다.¹⁴⁴⁾ 실제로 일본해군은 솔로몬 방면의 기지에 370톤의 식량 및 60톤의 탄약을 운반하기 위해 잠수함을 투입하여 3척을 상실하기도 했으며 매달 척 당

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제1차 세계대전시 독일의 무제한 잠수함전을 불법, 비인도적인 행위로서 항의했던 미국이 무제한 잠수함전은 실시하지 않을 것이며 일본의 무제한 잠수함전은 미국의 참전을 유도하여 오히려 일본의 패배를 자초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둘째는, 잠수함의 가장 효과적인 운용은 해상교통로의 파괴보다는 함대 보조세력으로서 대함 공격이며, 함대결전에서 승리할 수 있다면 무제한 잠수함전은 결국 봉쇄될 수 있다는 편향된 艦隊決戰 第一主義 思想이고, 셋째는, 현대 총력전에 대한 인식의 부족했다고 보았다. 外山三郎 『大東亞戰爭と 戦史の教訓』, pp. 83-93. 정호섭, “太平洋戰爭時 日本海軍의 失錯,” p. 40. 재인용.

143) 이정수, 『제2차세계대전 해전사』, p. 206. 이를 보면 일본의 통상파괴전의 효과는 그리 미미한 것이 아니었으나, 통상파괴전에 틈틈이 참가한 잠수함수와 함대작전에 참여한 수의 비율이 절대적으로 낮아 비교가 안될 정도로 함대작전에 치중하였던 것이다.

144) 정호섭, “太平洋戰爭時 日本海軍의 失錯,” p. 40.

1-3만 톤의 상선을 격침시킬 수 있는 잠수함으로 120-130톤의 식량 및 탄약 등을 총 313회나 운반시켜 총26척의 잠수함을 손실케 했다.¹⁴⁵⁾

이에 비해 미 해군은 개전 당시 일본과 유사한 사고를 가지고 있었으나¹⁴⁶⁾ 1942년 중반부터 대서양 전역에서 독일 잠수함의 무차별 통상파괴전으로 인해 영국이 고전하고 있었던 사실, 그리고 잠수함에 의한 통상파괴가 전쟁 전반에 아주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인식하고 통상파괴전이야말로 일본의 국력을 소모시키는 것은 물론 일본의 국력을 붕괴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확신하게 되었다.¹⁴⁷⁾ 미국의 잠수함부대가 독일해군의 전법을 따라 잠수함의 공격목표를 상선으로 돌려 이른바 「이리떼작전(Wolf Pack)」을 적용하게 된 것은 1942년 8월 이후이다.¹⁴⁸⁾

이런 잠수함 운용원칙에 따라 미국은 무제한 잠수함전을 통해 전세계 해상에서 일본선박을 주요 표적화 하였으며, 총 1,314척 530만 톤의 함선이 미 잠수함에 의해 격침되고 일본의 보급생명선은 절단되었다. 결국 전쟁물자의 궁핍으로 일본은 항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¹⁴⁹⁾ 그리고 태평양전쟁 기간 중 미국은 도합 204척 560,000톤을 상회하는 일본군함을 격침시켰다.¹⁵⁰⁾ 즉 미국

145) 平間洋一, “日本海軍の潜水艦戦を斬る,” 『世界の艦船』(1999년 1월), pp. 91-92. ; 北林雄明, “潜水艦は海戦たどら變えたか,” p. 88. 정호섭, “太平洋戦争時 日本海軍の失錯,” p. 42. 재인용.

146) 이정수, 『제2차세계대전 해전사』, p. 212.

147) 이와 같은 배경에서 1941년 12월 진주만 기습을 받고서 미 해군 총장(King)은 섬나라 일본에 대해 무제한 잠수함전을 실시, 보복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정호섭, “太平洋戦争時 日本海軍の失錯,” p. 41.

148) 대륙국가인 미국은 잠수함의 운용 원칙을 다음과 같이 구체화 시켰다. ① 공격목표지역으로 향하는 적의 보급선을 차단하기 위하여 잠수함을 집중시킨다. ②상륙작전을 감행하기 위해 지정된 해안거점을 정찰하며 촬영하고 또한 기타 적 육·해군의 장비시설을 정찰 촬영한다. ③ 공습시 해상인명구조에 임한다. ④ 적진내의 척후정찰을 감행하며 적의 이동상황을 보고하고 미군의 공격에 대항하러 나오는 적 부대를 저지시킨다. ⑤ 공격목표구역으로부터 도주하는 적 함선을 차단하여 공격한다. 이정수, 『제2차세계대전 해전사』, pp. 210, 212,

149) 北林雄明, “潜水艦は海戦をどろ變えた,” 『世界の艦船』(1999년 1월), p. 87. 정호섭, “太平洋戦争時 日本海軍の失錯,” p. 41. 재인용,

은 잠수함으로 하여금 상선을 주요 표적으로 공격하고 부차적으로 군함을 공격하는 것으로 임무를 부여했던 것이다.

(5) 분석

해외 자원의존도가 전혀 없는 대륙국가 미국은 일본의 지리적 특성에서 기인하는 전략적 취약점을 감안하여 서태평양에서 벌어지는 해전에서 우세한 해·공군력(Sea and air power)을 이용하여 승리함으로써 일본이 자랑하는 지상 전투력을 제압하겠다는 오렌지계획을 입안하여 태평양전쟁이 끝날 때까지 자국의 기본적인 해양전략으로 삼았다.¹⁵¹⁾

이에 비해 일본은 제국국방방침에 있어서 해양국가적인 전략인 함대결전 사상을 견지하고 있었다. 이는 1905년 있었던 대마해전의 교훈을 바탕으로 미함대가 공격차 서태평양으로 진공해 오는 것을 요격하여 함대결전에 의해 승패를 결정짓는 다는 것이 요지였다. 이와 같이 일본이 함대결전사상을 지니게 된 원인은 마한의 함대결전사상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이유와 더불어 유타란트 해전의 교훈을 철저히 신봉하여 장래해전도 함대결전이 될 것이라는 확신한 결과였다. 결국 40년 이상 지속되어 온 함대 결전사상은 일본 해양전략의 유연성을 잃게 하고 해군의 개혁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었다. 그 병폐는 심각하여 전략과 전술체계를 정체시키는 주 요소가 되었으며, 항공기와 잠수함을 옹호하는 주 원인이 되었던 것이다.¹⁵²⁾ 그리고 함대결전사상의 일환으로 미함대 세력보다 우위를 점하고자 진주만 기습과 같은 기습작전을 시도했으나 사실 결과는 미비했다. 그 이유는 세력 면에서 어느 정도 대미 우위를 확보했었으

150) 이정수, 『제2차세계대전 해전사』, p. 214.

151) 정호섭, “太平洋戰爭時 日本海軍의 失錯,” p. 47.

152) 상계서, pp. 41-42.

나 심리적인 기대효과는 대단히 미미했다. 즉 미 주력부대인 항공모함은 전혀 피해를 입지 않은데 비해 미국인에게 반일 사상만 심어주었으며, 항전의식만 키웠을 뿐이다.¹⁵³⁾

그리고 잠수함의 운용면에서도 미국과 일본은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일본은 함대결전의 보조수단과 지상군 지원정도로 취급하였으나, 미국은 잠수함을 일본의 전략적 취약점인 해상교통로 파괴에 매진하게 만들었다. 이는 독일의 잠수함 운용에서 교훈을 얻었으며, 미국이 전적으로 통상파괴전에 주력한 주모티브가 되었다.

第 3 節 포클랜드전쟁

남미대륙의 남단 마젤란해협에서 동방으로 약 500km, 남위 51도 이남의 남대서양 상에 위치한 조그마한 섬 포클랜드제도는 가장 가까운 아르헨티나로부터도 580km 가량이나 떨어져 있으며 대소 200여 개의 섬으로 구성되어 있다. 1883년 영국이 포클랜드를 점령한 이후 근 150년간 연속된 영국과 아르헨티나 간의 포클랜드 영유권 문제가 1982년 4월 2일 아르헨티나가 무력으로 점령함으로써 전쟁으로 확대되었다.

방대한 매장량의 석유자원과 대서양상 해상교통로의 중간지점으로 포클랜드는 양국에게 모두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였다. 포클랜드전쟁은 긴 해상교통로를 가지고 전쟁을 수행한 해양국가 영국과 비교적 단거리의 해상교통로를 보유한 대륙국가 아르헨티나와의 전쟁이었다.

153) Carl V. Clausewitz, *Vom Kriege* (Bohn : Dümmlers, 1991), 류제승 역, 『전쟁론』 (서울 : 책세상, 1998), p. 175. 클라우제비츠는 기습을 통한 세력우위 보다는 심리적인 효과를 더 중시했다.

1. 영국의 해양전략

영국은 외교와 군사 및 경제적 압력 등을 복합적으로 구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전략목표를 포클랜드를 재탈환하는 것으로 정하였으며, 아르헨티나가 스스로 철수하지 않는 한 군사적 승리에 의한 점령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이런 방침에 따른 영국군의 군사전략은 제1단계로 남조지아군도를 탈환하고 제2단계로 포클랜드주변에 대한 해·공군의 봉쇄를 강화함과 동시에 동도의 공항을 파괴하며 제3단계로 아르헨티나 본토의 공군기지를 파괴함으로써 아르헨티나 점령군을 무력화하여 포클랜드섬에 대한 영국의 주권을 회복하는 것이었다.¹⁵⁴⁾

영국의 군사전략 하에서 해양전략은 엄청난 거리에 이르는 해상교통로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아르헨티나의 병참선을 차단하며, 주변해역을 해상봉쇄하고, 나아가 상륙작전을 실시한다는 공세적 작전이 주요 골자였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국은 단기속전속결을 원했으며 이는 본토에서 포클랜드에 이르는 장거리 해상교통로 확보상 곤란함과 다가오는 겨울철의 기상악화, 반전여론의 득세, 동맹국의 지원약화 등을 고려한 영국의 자구책이었던 것이다. 이런 해양전략에 따라 우드워드계독은 즉시 항모를 중심으로 핵잠수함, 구축함, 상륙강습함, 유류수급함, 보조함, 등의 대기동부대를 편성하여 해양전략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했다.<표3-7참조>

2. 아르헨티나의 해양전략

최초 포클랜드를 점령하기 위해 아르헨티나는 타국과의 연합훈련을 위장한

154) 국대원, 『포클랜드전쟁의 교훈과 한국안보』 (서울 : 국방대학원, 1990), pp. 17-34.

완벽한 기만작전으로 항모, 순양함, 잠수함, 상륙함 등의 집중된 군사력을 사용하여 단숨에 포클랜드를 점령할 전략을 수립했다. 이 전략 하에서 일시에 포클랜드를 점령한 아르헨티나는 영국과 일전이 임박하자 열등한 세력<표3-7 참조>으로 함대결전에 의한 영국함대의 침공을 저지하기보다는 소모전에 의한 영국의 의지를 철회시키고자 했다.¹⁵⁵⁾

따라서 아르헨티나군의 군사적인 목표는 영국 기동부대가 포클랜드제도를 재탈환하지 못하도록 거부하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런 해양거부와 더불어 아르헨티나 군은 원거리해역에서 작전하는 영국군의 군수문제와 동계작전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기 위하여 장기지구전격인 현존함대전략을 채택했다. 아르헨티나가 현존함대전략과 같은 장기지구전을 선택한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남미국가들의 정치적 및 군사적 지원을 획득하고 신형장비를 도입하기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해서였다.

3. 전쟁의 경과

포클랜드전쟁은 영국의 정책에 대한 아르헨티나의 오판과 양국간의 관념적 국민성에 대한 오해, 정치지도자로서의 야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했다.¹⁵⁶⁾ 이 전쟁의 경과를 크게 발단 및 발전기(1982. 4. 2-4. 30), 제공, 제해

155) 김종화, “해양전략 이론과 잠수함전 운용에 관한 연구,” pp. 71-75.

156) 영국의 정책에 대한 아르헨티나의 오판은 ‘1981년 재래식전력의 감축과 핵전력증강’이라는 영국의 정책발표에 기인했다. 그리고 국민성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살펴보면 영국은 일반적인 남미 제국의 국민성인 인내심이 강하고 특별히 포클랜드에 대한 영국의 점령에 이의제기가 없을 것으로 판단한 반면 아르헨티나는 포클랜드에 대한 영국의 관심이 사라지고 포클랜드를 점령하더라도 영국이 재탈환하려는 의지가 없으리라고 판단했다. 정치지도자(대처)의 야심으로는 퇴진인가 아니면 재탈환으로 영국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기로에서 재탈환을 결심하였으며, 아르헨티나 정부 역시 국내 정치적 불안과 경제적 소요 등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을 외부로 유도하기 위한 대안으로 작용했다. 김종민, 『전쟁과 해양전략』, pp. 220-222.

권 탈환기(5. 1-5. 20), 상륙 및 탈환 작전기(5. 21-6. 14)로 구분될 수 있다.

아르헨티나는 2개의 기동부대를 조직하여 1982년 3월 26일 본토를 출항하였다. 그리고 4월 1일 21시경 아르헨티나 기동부대는 동포클랜드에 도착하여 특수요원으로 정찰한 다음 4월 2일 영국수비대를 제압하고 이 섬을 점령하였으며, 영국은 4월 3일 대규모 함대를 증파하여 즉각 이에 대항했다.¹⁵⁷⁾ 4월 25일 영국기동부대는 남 조지아섬에 도착하여 이 섬을 탈환하고 4월 30일 11시를 기하여 포클랜드주변해역 200마일에 대한 전면봉쇄작전을 개시하였고 미국의 전쟁중재가 실패로 끝나자 전쟁은 제2단계로 접어들었다.¹⁵⁸⁾

해양국가인 영국은 장거리 해상교통로로 인해 포클랜드와 본토의 중간지점에 해당되는 섬 아센션에 보급기지를 개설하여 그곳에 집중적으로 보급체제를 구축하였다. 5월 1일 아센션섬에서 발진한 영국 폭격기들은 포클랜드 섬을 공격하여 활주로를 격파하였고, 해리어기는 다윈섬과 구스린섬에 대한 공격을 감행했다. 아르헨티나도 다저(Dagger)기로 반격을 가하여 영국함정에 피해를 입혔다. 영국은 2단계 작전에서 해상 및 공중우세를 확보하여 주도권을 장악하고 아르헨티나군을 고립시키 위하여 병참선 차단에 주력하였으며, 아울러 지속적인 함포사격, 공중폭격 및 특수부대요원에 의한 기습 상륙작전 등을 실시하였다. 영국은 4월 12일 포클랜드섬 주변 200마일에 대하여 전쟁수역을 선포하여 포클랜드섬을 점령하고 있는 아르헨티나 군을 본토와 고립시키고자했다. 제3단계 작전은 상륙 및 탈환작전기(5. 21-6. 14)로 5월 21일 영국은 포클랜드해협에 진입하여 해병대 및 공정대 2,500명을 기습 상륙시키고 5월 28일 공정부대 600명을 다윈 및 구스그린 지역에 다시 강습 낙하시켰다. 5월 30일 영국의 상륙부대는 투 시스터즈능선과 켄트고지를 장악함으로써 계속 포트 스탠리에 대한 압박을 가했다.

157) 해군대학, 『세계해전사』, pp. 389-395.

158) 국대원, 『포클랜드교훈과 한국안보』, pp. 17-24.

<표3-7> 영국과 아르헨티나 양측의 참가세력

구분		영국	아르헨티나
해군 (척/대)	항공모함	2	1
	핵잠수함	5	
	잠수함	1	4
	전투함	26	33
	기타	6	15
	소계	40	53
	보조함선	22	
	동원선박	59	
	함대항공단	28 Sea Harrier 150 헬기	5 Super Entendard 57기타
공군	항공세력	10 Harrier	50 A-4
		4 Chinook	40 Mirage-III
		Vulcan	5 Canberra
			60 Pucara
			기 타
지상군	상륙군	해병대 제3여단 육군 제5여단 제2공수연대 계 8,000명	해병대 1,000 육군 11,500 계 12,500

출 처 : 해군대학, 『세계해전사』, p. 388.

6월 1일 영국증원군 3,000명이 포트 스탠리 북쪽에 추가 상륙하여 합계 7,000명의 병력을 투입한 영국 측은 포트 스탠리 공격을 위한 결정적 호기를 맞이했다. 한편 6월 8일 아르헨티나 공군기에 의해서 영국 상륙함 1척이 격침되었으며 6월 12일에도 영국 구축함 1척도 아르헨티나의 엑조세 미사일에 피

격 당했다. 그러나 6월 14일에 아르헨티나의 방어선이 돌파되었으며 6월 15일 새벽 쌍방이 휴전에 동의함으로써 75일간의 포클랜드전쟁은 종료되었다.

4. 잠수함전

포클랜드해전에서 영국과 아르헨티나 양국은 모두 잠수함을 해전에 사용하였다. 74일간의 교전에서 실제 해군간의 교전은 영국 핵잠수함 킨커러(Conqueror)함에 의한 아르헨티나의 유일한 순양함 제너럴 벨그라노(General Belgrano)함이 격침된 것 외에는 없다.

아르헨티나는 당시 잠수함을 4척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실제로 운용 가능한 잠수함은 산 루이스(San Luis) 1척에 불과했다. 아르헨티나가 보유하고 있던 잠수함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에서 건조 운용되다가 1981년에 재취역한 Balao급 산타 페(Santa Fe)와 산티아고 델 에스테로(Santiago del Estero)이며, 나머지 2척은 1970년 중반에 독일에서 제작되어 아르헨티나에서 조립된 209급 살타(Salta)와 산 루이스(San Luis)였다.

이들 4척 중 에스테로는 잠항이 불가능하여 잠수함기지에서 정박훈련용으로 사용되고 있었으며, 산타 페(Santa Fe)는 4월 25일 영국이 남 조지아를 탈환할 때 로켓트와 미사일 공격을 받아 침몰상태의 손상을 입어 영국군에 포획되었다. 209급 살타는 과도한 소음으로 작전투입이 불가능하여 실제 작전에는 산 루이스만이 참가하였다. 그러나 산 루이스마저도 어뢰의 와이어가 절단되는 결함이 발생하여 수상함 공격에는 성공하지는 못했다.

영국은 핵잠수함 5척과 재래식잠수함 1척을 포클랜드에 파견하였다. 특히 실전에 처음 운용된 영국의 핵잠수함은 해양통제권을 확보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아르헨티나의 수상함정을 격파함으로써 해상봉쇄의 주역으로 등장하였다. 그리고 영국 핵잠수함은 강력한 전투력과 적전능력으로 해

양통제권을 확보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다.¹⁵⁹⁾

5. 분석

해양국가의 해양전략은 제해권을 유지하고 해상통제를 달성하여 이를 확대하고 각종 압력을 통하여 해양에서 육지로 힘을 투사하는 적극적인 전략형태를 띤다고 볼 수 있다. 7,000마일이라는 해상교통로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영국해군에게는 해상통제는 필수적이었고 수상함정과 잠수함간의 유기적인 작전과 더불어 항공기에 의한 제공권 확보도 전승에 주효했다. 그리고 동 개념 하에서 영국은 잠수함을 적절히 활용하여 적 수상함을 격침시키고 항구에 묶어 두면서 현존함대전략을 수행할 수밖에 없도록 강요했다.

이와 달리 대륙국가적 성향의 아르헨티나는 주 전역이 해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휘관을 육군 장성으로 선정한 다음 나중에 해군장성으로 전환시키는 우를 범했다. 지휘구조상의 문제점뿐만 아니라 해양통제를 달성할 수 없다면 공세적인 해양거부를 적극적으로 시도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수세적이고 소극적인 소모전을 추구하였다. 만약 아르헨티나가 긴 영국의 해상교통로를 교란할 목적을 가지고 잠수함을 운용했다라면 결과는 쉽게 예상될 수는 없었을 것이

159) 영국 핵잠수함의 능력은 2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영국 핵잠수함의 우수한 기동력을 들 수 있는데 핵잠수함 스파르탄(Spartan)이 7,000마일의 원거리를 약 2주간 20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여 4월 12일 포클랜드해역에 도착하여 이 지역에 대한 조기해상봉쇄를 단행하였으며 이로 인해 영국은 자유로운 해상작전이 가능했다.

둘째, 수상함정에 대한 핵잠수함의 기습공격능력이다. 영국이 봉쇄에 의해서 포클랜드주변에서 해양통제권을 확보하려면 아르헨티나와의 해상결전을 하여야 했고 포클랜드제도를 탈환하기 위한 상륙작전을 감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적 해상세력을 패배시켜야 했다. 이런 목적 하에 핵잠수함은 기습공격을 감행하여 아르헨티나의 순양함을 조기에 격침시킴으로써 이런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 Max Hastings and Simon Jenkins, *The Battle for the Falkland* (New York : W. W. Norton & Company, 1983), pp. 61, 146-149. 김종화, “해양전략 이론과 잠수함전 운용에 관한 연구,” p. 78. 재인용.

다. 또한 영국이 상륙작전을 감행하기 전에 제해권, 제공권 불비의 상태에 있었으며 따라서 다소 무모하게 보일 수 있는 상륙작전을 감행하기에 이르렀는데 이때에도 아르헨티나의 잠수함은 적극적인 작전을 시도하지 않았다. 만일 아르헨티나가 우세한 항공력과 잠수함간의 합동작전을 감행했다라면 승산이 없는 작전도 아니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우세한 함대에 대해서 해상결전을 감행하기는 어렵겠지만 긴 해상교통로를 가진 해양국가에 대해서 대륙국가는 잠수함과 같은 무기체계를 적절히 운용하면 내선작전의 이점을 살릴 수 있다. 즉, 대륙국가는 현존함대 전략을 고수하면서도 비교적 승산이 높은 통상파괴전을 잠수함과 항공력을 이용하여 수행하면 전쟁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다. 반대로 긴 보급선인 해상교통로를 지닌 해양국가가 먼 곳에 위치한 자국의 이익을 확보하려면 대륙국가에게 해상결전을 강요하여 해양통제권을 확보하고 또한 이를 확장하여 세력투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그리고 기동력과 작전능력이 우수한 핵잠수함은 해상통제에 적극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 이 전쟁의 시사점이다.

第 4 節 小結論

국가전략차원에서 볼 때 해군력이 차지하는 역할과 비중은 그 국가의 지정학적인 위치와 전통적인 전략사상에 따라 달리해 왔음은 양차대전과 포클랜드 전에서도 입증되었다. 환언하면 대륙국가와 해양국가는 국가의 지리적인 위치, 타국과의 관계적 위치와 군사 사상적인 배경의 차이로 달리 해양전략 개념을 발전시켜 왔다는 것이다. 이는 지리적인 위치에 발생하는 주변국의 압력이 상존하는 대륙국가에서는 대륙 중심적인 전략사상인 해양거부가 중심을 이루었

고 상대적으로 자원의존도가 심한 국가인 해양국가는 평시에 경제력을 신장시키고 전시에 해양통제가 중심이 되는 전략인 해양통제전략을 발전시켰다.

국가전략을 수행함에 있어서 해양강국은 해군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반면 대륙강국은 해군력을 소극적으로 활용한 것이 특징이었다. 이런 대륙국가와 해양국가의 해양전략의 차이로 잠수함도 그 임무와 역할이 달랐다. 해양국가의 해양전략 하에서 잠수함은 적함대와 결전에 주로 이용되었고 이를 더욱 신장하여 출항통제, 요새점통제, 광역통제, 지역통제의 임무를 수행하였던 반면 독일과 같은 대륙국가에서는 연안방어와 통상파괴전이라는 독특한 임무를 수행하였다.

제1차 세계대전에서 영국은 함대세력을 온전하게 유지하고 적함대를 적극적으로 색출하여 격멸한다는 함대결전과 통상보호전을 해양전략으로 채택했다. 그리고 제해권을 적극적으로 유지하면서 상륙작전을 공세적으로 실시하여 그 세력투사의 효과를 극대화하려 했다.¹⁶⁰⁾ 그러나 잠수함의 가치를 무시하여 결과적으로 독일의 통상파괴전에 무력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런 인식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도 변하지 않았다. 그리고 일본도 함대결전에 의한 미국함대를 격파하고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고자 하였으며 잠수함 역시 함대결전 보조용으로 활용하고자 했다.

그러나 대륙국가인 독일은 영국 주력함대와 결전은 되도록 회피하고 기습과 야간작전에 주안을 두었다. 우연에 의한 함대결전에서도 공세적이기보다는 수세적으로 임하여 결전을 회피하려 하였으며 이후 작전에서는 현존함대전략을 고수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제2차대전에서는 아예 제한적인 함대결전의지도 버리고 수상함정과 잠수함을 모두 이용한 통상파괴전에 집중시켜 영국과 연합국의 전쟁의지를 말살하려고 했으며 영국의 경우 연합국의 지원이 없었더라면 전쟁은 그리 낙관적이지 못했을 것이다. 독일의 통상파괴전은 태평

160) Ambrose, "Seapower in World Wars I and II," pp. 186-187.

양에서의 미국의 표준적인 모델이 되었으며 해양국가인 일본의 해상교통로를 적극적으로 파괴하려는 미국의 해양전략으로 자리잡았다. 대륙국가의 소극적인 전략은 아르헨티나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그러나 포클랜드전에서 아르헨티나는 현존함대전략을 고수하면서도 적극적인 해양거부를 실시하지 않은 것이 특징이라 하겠다. 포클랜드전쟁의 교훈 점은 핵잠수함으로는 해상결전과 같은 용도로 충분히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했다는 점이다.

第 4 章 韓國의 海洋戰略 選擇과 潛水艦運用

第 1 節 韓國의 地·戰略的 特性

韓國의 地理·戰略적 特性에 관한 고찰은 세계 속에서 韓國의 위치와 분단이라는 특수한 현 상황, 그리고 통일이후의 여건 등을 고려한 차원에서 살펴 보아야 한다.

먼저 세계 속 위치에서 각 이론에 따른 한반도의 위치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로 구분이 가능하다.¹⁶¹⁾ 우선적으로 맥킨더의 심장지역 이론에 의하면 한반도는 추축지역 주변에 위치한 내측초생달 지역이며, 스파이크맨의 주변지역 이론에 따르면 한반도는 주변지역으로 강우가 많고 농경이 유리하며, 인구집 중지역이고 정치적 통일과 권력의 집중이 약한 곳이나 해상교통이 좋고 외양 과 잘 결합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갖고 있는 곳이다. 심장지역-주변지역 관계 를 재구성한 마이닉의 논문 “Heartland and Rimland in Eurasian History” 에 따르면 한반도는 해양적 주변지역(maritime rimland)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분단 상황이라는 특수한 환경과 더불어 한반도의 특성을 살펴보면, 한반도는 심장지역 세력과 주변지역 세력이 맞닿는 곳으로 남과 북이 각각 해양세력과 내륙에 위치한 대륙세력의 강력한 영향하에서 있다. 남한의 경우, 영 토규모의 영세성, 다수의 인구, 그리고 육상자원의 부족 등을 일차적으로 고려 할 때 한국의 돌파구는 일단 해상을 통하여 찾아야 할 것이다. 환언하면 얼지 않는 바다, 초대형 대륙 유라시아에 접해있는 녹해, 최대 대양 태평양에 접해

161) 임덕순, 『정치지리학원리』, pp. 110-133.

있으면서 일본, 미국 선진 산업국을 대면하고 있다. 이런 환경을 이용해 남서 및 동쪽으로 쉽게 진출할 수 있는 조건을 활용할 필요성이 있고 이런 정책이 국가의 주요 정책으로 현재 채택되고 있다.

분단이라는 특수한 현 상황에서 육로를 통한 교역으로 국가이익을 추구할 수 없는 한국은 해상무역을 통한 국가의 부를 축적해 나가고 있다.¹⁶²⁾ 특히 수출주도형이라는 정책형태로 국가가 수출을 장려하고 있으며 내수보다는 해외국가와 교류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런 점에서 반도국가 한국의 해양정책은 바다의 적극적인 사용을 명시하고 꾸준히 노력하고 있는 국가정책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통일을 가정한다면 통일한국은 반도국가이면서 해양의 이(利)와 대륙의 이(利)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국가가 될 수 있다. 즉 해양을 통한 무역의 이를 지속적으로 추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경을 통한 교역을 인접국가와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분단된 한국이 통일된 국가를 건설한다고 하더라도 대륙으로 연결될 인프라의 절대부족이라는 사실로 인해 해상을 통한 해외무역의 존도는 상당기간 지속될 뿐만 아니라 그런 정책의 기초를 계속 유지할 공산이 크다.

종합적으로 보면 한국은 다면 해양적 위치인 반도국가로서 해양으로 접근성이 좋고 심장지역과 멀리 떨어져 있으며, 내륙초생달지역에 속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은 해외자원에 대한 의존도가 크고 바다를 이용한 무역에 국가의 사활을 걸고 있는 해양국가로서 성격이 강하다. 특히 분단상황이 이런 정책을 더 중요하게 받아들이게끔 만들고 있다. 그리고 통일 이후에도 이런 한국의 정책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다.

162) 관세청, 『그림으로 보는 '99무역통계』 (서울 : 관세청, 2000), p. 11, 22. 99년 기준 한국은 해상화물로 986억불(전체 수출총액 대비 98.6%)치를 수출하였고 768억불치(전체 수입액 대비 76.8%)를 해상화물로 수입하였다. 그리고 한국의 주요 해외 의존자원은 연료, 철강재, 공업원료, 광물 등으로 570억불 어치를 수입하였다.

第 2 節 韓國의 海洋戰略

1. 大陸國家의 海洋戰略과 聯關性

전통적으로 한반도에서의 전략사상은 대륙국가의 전략사상으로 그 배경은 지리적으로, 군사적으로 공히 동양의 심장지역을 점유한 중국의 영향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한반도는 중국이라는 너무 큰 강대국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었던 바 지상군위주의 전략사상에 중점을 두어야 했으며 주로 지상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전략이 수립되어 졌다.¹⁶³⁾

이러한 맥락에서 제3장에서 연구한 대륙국가인 독일과 아르헨티나 해양전략의 경우처럼 한반도에 등장한 국가들은 가급적으로 함대간 결전을 회피하고 해안선 보호에만 급급한 임무를 해군에게 부여했다. 따라서 한반도에서도 역시 해양전략은 지극히 수세적이고 소모적이었으며 삼국시대 이후 계속된 왜구와 같은 내침의 경우에서 나타나는 부분적인 공세적 해양전략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수행한 적극적인 힘의 과시가 아니라 한반도의 연안을 보호하기 위하여 행해진 일시적 공격형태에 불과했기 때문에 지속적인 해양력의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는 못하였다. 결국 수세적이고 소극적인 해양전략으로 인해 수 백년간 계속 왜구의 시달림을 받을 수밖에 없게 하였다.

독일이나 아르헨티나가 수행했던 수세적 해양전략과 그 시대적 배경과 상황은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해양전략에 대한 국가의 정책이나 국민적 성향이 비슷했다는 점에서 볼 때 역사적으로 대부분의 한반도 해양전략 수행방법은 대륙국가들이 겪어야 했던 것처럼 국력팽창에 기여한 정도가 많지 않았으며,

163) 황규원, “대륙국가와 해양국가의 해양전략 비교와 한반도 적용,” p. 63.

반도국의 특성을 십분 발휘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대륙적인 군사사상의 전통수립에 영향을 준 것은 전술한 바와 같이 다른 아닌 중국과의 왕래로 인한 큰 대륙세력에 의존하면서 국가정책이 대륙을 더 지향했기 때문일 것이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반도국가이면서도 대륙국가의 군사사상을 지니고 이를 고수하여 왔으며 해양력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지 않으려는 방향으로 유지되어 왔다.

2. 海洋國家의 海洋戰略과 聯關性

마한은 해양력의 요소를 논의함에 있어서 크게 두 가지 요소인 선천적인 조건과 인위적인 조건(정부의 성격)으로 나누었으며, 그는 선천적인 조건을 더 중요시했다. 마한은 기본적으로 자연적인 조건이 갖추어진 환경 하에서 인위적인 조건을 조화시키는 것이 해양력에 의한 국가번영을 추구하는 첩경임을 강조했던 것이다.¹⁶⁴⁾ 마한의 주장처럼 역사 속에서 많은 해양강국들의 공통점은 해양력을 활용한 대외활동에 적극적이었고, 그 배경에는 지리적인 조건이 우호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반도에서 군사사적인 전통을 살펴보면 공세적이고 적극적인 해양전략을 추구했던 때는 신라의 삼국통일기, 고려의 후삼국통일기와 여몽함대, 박위함대, 이종무함대의 대마도정벌기 등을 대표적인 사례로 들 수 있다. 앞서 군사사적인 사례에서도 해양에서의 공세적 함대운용이 수세적인 측면보다는 훨씬 더 국가목표달성에 기여하는 효과가 지대했다. 또한 수세적인 군사전략 하에서 부분적으로 공세적 행동을 취함으로써 해상통제권을 획득한 신라 함대, 이

164) Alfred T. Mahan, *Naval Warfare* (Boston : Little Brown, 1941), 김득주의 공역, 『해군전략론』 (서울 : 동원사, 1974), p. 28.

순신 함대, 고려 정지 함대의 경우에서도 해상에서 공세적이고 적극적 활동이 얼마나 효과적인가를 입증했다.¹⁶⁵⁾

그리고 한국전쟁시 낙동강전선이 교착상태에 빠져 있을 때 북한은 무장선박에 특공대 600명을 싣고 부산외곽에 침투를 기도하였지만 한국 군함 백두산함이 이를 대한해협에서 격침시켜 후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연합군에게 원활한 병참지원이 가능하도록 해로(SLOC)를 열어 놓았다. 그리고 역사적인 인천상륙작전은 연합군의 승리에 결정적으로 기여하였으며 전세를 완전히 역전시켰다.

군사사적으로 공세적인 해양전통과 더불어 지·전략적으로도 한국은 3면이 바다이고 해상으로의 접근성이 좋으므로 조미니가 주장한 위치와 병참선, 집중의 장점을 가질 수 있다.¹⁶⁶⁾ 환언하면 한국의 지리적인 위치는 해양력을 유지하고 활용할 때 이를 더욱 강하게 만드는 유리한 점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다. 즉 한국은 3면이 바다라는 반도국의 이점으로 자원의 집중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여러 항구에 위치한 함정을 배비함에 있어서도 상호지원의 장점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다.¹⁶⁷⁾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면 500여 차례의 외침중 대부분이 한반도의 역사에서는 대륙에서 국경을 통한 침입이 절대다수를 차지 하지만 그런 와중에서도 함대를 공세적으로 활용한 고대 한반도 국가는 융성할 기회를 가질 수가 있었다. 이는 반도국의 전략적인 위치를 적절히 활용한 것이며, 이런 지리적인 위치가 병참과 세력집중을 용이하게 유도한 점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한 경우라 하겠다. 그리고 그런 이점을 간과하지 않은 해양국가적인 정부의 성격이 전승

165) 황규원, “대륙국가와 해양국가의 해양전략 비교와 한반도 적용,” p. 67.

166) “해양력이란 의심할 여지도 없이 전략적 위치에 좌우되지만 가장 확실한 요소는 바로 기동성을 가진 해군함정이며 이러한 함정이 전략적 위치까지 가지고 있다면 이는 해양력을 가장 강하게 만드는 요소”라고 주장했다. 김득주 역, 『해군전략론』, p. 291.

167) 김현기, 『현대 해양전략사상가』, p. 205.

에 주효했다.

3. 兩 海洋戰略의 수용 可能性

무릇 전략이란 한 국가가 처해 있는 환경적인 요인과 현실에 확고하게 기반을 둔 사고에서 비롯되며 이를 행동계획에 적용시킴으로써 목적을 달성하게 된다. 그러나 전략은 납득할 수 있고 지역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철학적 기반을 지녀야 하며 또한 외재된 요인에 의해 강요되는 상황부여가 아니라 실제 적합한 개념으로 마련되어야 한다.¹⁶⁸⁾

반도국가의 해군은 대륙국가와 육지를 통하여 접경상태에 있고 해양국가와 대양으로 연결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해양과 지상 즉, 양면의 위협을 관리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일반적으로 대륙국가의 위협은 그들의 해양거부 기도를 반도국이 해양통제 입장에서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해양국의 위협은 그들의 해양통제 기도를 반도국이 해양거부 입장에서 관리할 수 있어야 하는 상반된 입장이 된다.¹⁶⁹⁾ 따라서 반도국은 상반된 전략을 동시에 구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는 당위성이 성립되는 것이다.¹⁷⁰⁾

현실적인 면을 고려할 때 분단상황 하에서 북한은 유라시아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른바 심장지역에 연한 중국과 러시아와 국경을 접한 까닭에 대륙국가의 전략사상에 크게 영향을 받아왔다. 지리적인 위치에서 기인하는 제한으로 북한은 불리한 해양전략적 측면이 있지만 자원의 유입과 동맹국의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남한보다는 확실히 대륙 국가적으로 유리한 입장에 있다고 하겠다.

168) J. C. Wylie, *Military Strategy : A General Theory of Power Control* (New Brunswick : Rutgers Univ. 1967), p. 108.

169) 강영오, 『한반도의 해상전략론』 (서울 : 병학사, 1988), p. 125.

170) 상계서, pp. 352-353.

반면 남한은 스파이크맨이 주장하는 주변국에 속하면서 동맹 및 지원세력이 미국을 비롯하여 주로 해양세력인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지리적인 위치와 유리한 해상병참선의 이점을 십분 살린다면 분명히 공세적이고 적극적인 해양전략을 선택함이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은 한번 쌍방간에 전쟁을 치른 경험이 있는 북한이 대규모 지상군 병력을 배치하고 있다는 군사적 상황에서 일반적인 반도국과 다른 특이한 여건에 처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단절된 육지와 더불어 주변해양강국과 접해있다는 측면에서 한반도에서 생존을 위해서 자유로운 해양사용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종합적으로 본다면 한국은 주적으로 간주하고 있는 강대한 북한 지상군에 대비하기 위한 지상군 중심의 대륙적인 해양전략을 수립한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북한과 달리 인접한 국가로부터의 병참지원을 받을 수 없는 점을 굳이 든다면 적극적이고 공세적으로 해양력을 운용하는 해양국가의 해양전략 선택도 상당한 가능성을 남겨두고 있다.

4. 韓國의 海洋戰略 選擇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해양전략의 형태는 크게 2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 그 내용으로는 해양거부사상에 입각한 대륙적 해양전략과 해양통제와 투사를 주 내용으로 하는 해양적 해양전략이 될 것이다. 물론 현 상황인 남북간의 대치와 주변강국과의 인접한 점에서 한국은 대륙적 해양전략과 해양적 해양전략을 동시에 수립해야 한다는 당위성도 물론 있다.

복잡한 안보환경하에서 어느 해양전략을 취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털제독의 견해는 돋보인다. 털제독은 해양력의 개념을 시간, 공간 및 정도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¹⁷¹⁾ 즉 시간과 공간, 정도에 따라서 대륙적 또는 해양적 해양전

171) 강영오·오관신 "통일한국의 해군력," (1991년도 위촉연구과제 보고서, 해군본부,

략을 수립해야한다는 것이 요지이다. 한국이 발전시킬 수 있는 해양전략은 한국의 국가목표와 군사전략 목표에 따라 발전되어야 하며, 반도국가라는 지리, 전략적 위치와 더불어 여러 가지 종합적인 환경을 고려하여 수립되어야 한다. 환언하면 사례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해양으로부터의 위협이 대륙국가에 의해서 발생할 때는 해양국가의 해양전략을 견지해야 하고 해양국가의 위협일 때는 대륙적인 군사사상을 수용하여 적극적으로 국가전략의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먼저 해양국가의 해양전략사상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해상통제, 해상투사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양국가적 해양전략에 대해서 고려해 보자.¹⁷²⁾ 자유로운 해양사용인 해양통제는 목적개념이 아닌 타국과의 상대적인 차원이며 자유로운 모든 활동을 보장하는 것이고 이는 공세적이고 적극적인 해양력 운용으로 달성될 수 있다. 이는 제3장의 해전사의 사례에서도 입증되었다. 한국이 원하는 해상통제는 한반도 주변의 국지적 해상통제권을 유지한다는 것으로 한반도 해역에서 주변 가상적국의 해군에 대하여 적절한 해군세력을 유지하여 한반도 주변 해상통제권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해양통제에도 공세와 수세로 구분 가능하다. 공세적 해양통제전략하에서는 가상적국에 대해서 출항통제, 이동로통제, 광역통제, 국지통제를 실시할 수 있어야 한다. 수세적 해상통제전략사고는 한국수역의 연안방어와 더불어 막대한 해상물동량의 안전한 수송을 고려하는 것이 적당할 것이다.

다음으로 대륙국가적 해양전략을 수용한다고 가정한다면 해양거부를 해군의 역할로 수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때 연안방어와 해상교통로 파괴가 그 핵심일 것이다.¹⁷³⁾

1991), pp. 65-73.

172) 상계서, pp. 65-67.

173) 상계서, pp. 77-78.

연안방어는 한국보다 강국인 해양국가의 해군력에 대항한 현존함대 전략을 고수하면서 제기될 수 있는 것이다. 즉 주요항구를 보호하고 해상에서 육상으로 침투를 차단하며 주전장을 육지에 국한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해상교통로파괴전은 한국의 연안을 방어하는 한편 가상적국의 해상교통로를 적극적으로 파괴하는 전략을 의미한다. 이는 주요함대간 결전은 회피하고 손쉬운 해양국가의 소모전을 강요하는 작전으로 전쟁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다. 이의 달성을 위해서는 함대를 수세적으로 운용하되 통상파괴에 해군력을 집중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해양적 해양전략과 대륙적 해양전략을 조화롭게 접목시키는 전략사고도 고려해볼 수 있다.¹⁷⁴⁾ 태평양의 중심국과 선진주역이라는 정책결정자의 인식과 더불어 여러 가지 지·전략적인 환경을 고려한다면 선택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많다. 그 이유는 한반도의 정치, 경제, 군사 및 지리적 조건과 위치, 그리고 분단된 현실과 통일 상황을 고려해 볼 때 한반도는 대륙국도 아니며 완전한 해양국도 아닌 까닭에 대륙국의 전형적인 해양전략과 해양국의 해양전략을 조화시키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종합적으로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해양전략의 양태는 해양적 해양전략과 대륙적 해양전략으로 양자 택일 하거나 각 전략의 일부를 수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상대국이 어디인가를 고려하여 수립되어 지는 것이 타당하며 국가의 성장기를 경험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대륙과 해양국의 해양전략의 조화로운 수용 역시 고려해볼 수 있다. 조화로운 해양전략을 선택하면 적에 대한 적시적인 전략수립과 세력구비가 유연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위협의 성향을 파악하여 해양전략이 선택되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174) 상계서, pp. 78-79.

第 3 節 韓國의 潛水艦 運用

해양국가의 해양통제전략은 어느 한 국가가 해양통제 목적을 달성하여 어떤 이익을 기대하는 개념이 아니라 국가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해양에서의 자유스런 행동을 보장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것은 사례 연구와 전장을 통해서 서술한 바 있다. 이와 함께 해양거부전략은 자국안보의 방어군사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의미로 사용되어진다. 이런 관점에서 잠수함은 해양거부전략의 수단으로 뛰어난 방어능력을 발휘하게 된다. 그러나 제한된 능력으로 인하여 잠수함은 해양통제의 임무를 담당하기에는 그 한계가 분명히 있다. 이 또한 전사를 통해서 확인되었다. 즉, 해양통제가 구비된 다음 잠수함은 해양거부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각국은 잠수함의 전술적 운용을 다음과 같이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¹⁷⁵⁾ 그 내용으로는 ① 연안방어(Coast Defense) ② 적 해군력 소모강요(Naval Attrition) ③ 통상과괴전(Commerce Warfare)와 해상교통로(SLOC)의 방어 및 파괴 ④ 수중 및 해상과 해안에 대한 무력투사(Projection of Power) ⑤ 제한된 함대결전(Fleet Engagement), ⑥ 제한된 확증파괴(Assured Destruction), ⑦ 제한된 적 군사력 공격의 전략임무(Strategic Counterforce) 등이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재래식 잠수함에 지속적인 항해를 필요로 하는 호위, 수송과 같은 모호한 임무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제한된 재래식 잠수함의 능력으로 인해 그런 임무의 성공률이 낮을 뿐만 아니라 잠수함에 의한 전략적인 기여도가 저하될 것이기 때문이다. 즉 잠수함

175) Lautenschläger, "The Submarine in Naval Warfare 1901-2001," pp. 283-284.

은 방어적인 개념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함대결전이나 해상통제를 위한 목적으로 잠수함의 사용은 2차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사례연구에서 보듯이 잠수함을 해양국가들은 과거 함대결전의 보조용으로 활용하였으나 그 효과나 결과는 미미하였다. 그리고 2차대전시 일본의 경우에서 보더라도 잠수함은 함대결전의 보조용이었지만 틈틈이 행한 통상파괴전의 효과는 오히려 더 지대하였다. 따라서 통상을 파괴하는 것과 같은 적극적인 방어개념으로 잠수함을 운용해야 함이 옳다. 물론 핵잠수함은 달리 해석되어야 하며 현재 재래식 잠수함을 운용하고 있는 한국의 현시점에서 재래식 잠수함의 운용이 주로 고려되어 해양전략수립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대륙적인 개념에서 통상파괴전과 같은 적극적인 방어용으로 잠수함의 운용이 바람직하며, 함대결전용이나 보조용 또는 특수한 목적을 부여하는 해상통제형태의 잠수함 운용은 지양되어야 한다.

第 4 節 小 結 論

한국은 다면 해양적 위치인 반도국가로서 해양으로의 접근성이 좋고 심장지역과 멀리 떨어져 있으며, 내측초생달지역에 속하고 있다. 그리고 해외자원에 대한 의존도가 크고 바다를 이용한 무역에 국가의 사활을 걸고 있는 해양국가로서 성격이 강하다. 군사사상적인 전통은 대륙적인 것과 해양적인 측면을 양자 지니고 있고 적극적으로 해양을 사용하였을 때가 국력 상승기였다.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해양전략의 양태는 해양적 해양전략과 대륙적 해양전략, 그리고 양자의 일부를 수용하는 해양전략으로 요약될 수 있다. 반도국의 특수성을 고려한 현시점에서 해양전략의 유연성을 가지기 위해 양 해양전략의 조화로운 수용이 적절하며, 잠수함 역시 사례연구에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적극적인 방어용으로 이용되어야 할 것이다.

第 5 章 結 論

대륙국가와 해양국가의 구분은 한마디로 규정짓기는 곤란한 점이 많다. 그 구분은 해당국가의 지리적인 위치를 포함한 선천적인 조건뿐만 아니라 군사사상적인 측면, 그리고 정부의 성격, 해외 자원의존정도, 타국과의 상대적인 관계 등이 복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보통 지리적으로 2면 이상 다면 해양적 위치에 있는 국가가 해양국가이며, 대륙국가는 2면 이상 육지 접촉면을 가진 국가로서 대부분의 경제활동이 인접국가와 연한 국경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한 국가의 성향이 해양적인가 대륙적인가는 타국가와의 상대적인 관계에서 비롯되기도 한다. 즉, 이런 복잡한 구성요건 가운데 하나의 요소가 시대적으로 또는 공간적으로 더 절대적인 영향을 나타낼 때 해당국가의 성격이 결정되어 지는 것이다. 해전사를 통해서 살펴본 국가 중 해양국가의 대표로는 영국, 일본, 그리고 대서양 전역에서 미국을 들 수 있고 대륙국가의 대표로는 독일, 아르헨티나, 그리고 태평양 전역에서 미국으로 나눌 수가 있다.

국가의 성격 구분과 더불어 각 국가들은 여러 가지 요소의 차이로 달리 해양전략 개념을 발전시켜 왔다. 국경을 두고 주변국과 압력이 상존 하는 대륙국가에서는 대륙중심적인 전략사상인 해양거부가 중심을 이루었고 상대적으로 자원의존도가 심한 국가인 해양국가는 평시에 경제력을 신장시키고 전시에 해양통제가 중심이 되는 해양통제전략을 발전시켰다. 국가전략을 수행함에 있어서도 해양강국은 해군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반면 대륙강국은 해군력을 소극적으로 활용한 점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대륙국가와 해양국가의 해양전략의 차이로 잠수함의 임무와 역할 역시 상이하게 발전되어 왔다. 해양국가의 해양전략 하에서 잠수함은 출항통제, 요새점통제, 광역통제, 지역통제의 임무를 수행하였던 반면 독일과 같은 대륙국가에서는 연안방어와 통상과괴전

이라는 독특한 임무를 수행하였다.

사례연구결과, 제1차대전시 영국은 함대세력을 이용하여 적함대를 적극적으로 색출하여 격멸한다는 함대결전과 통상보호전을 해양전략으로 채택했다. 그리고 제해권을 적극적으로 유지하면서 상륙작전을 공세적으로 실시하여 그 세력투사의 효과를 극대화하려 했다. 그러나 잠수함의 가치를 무시하여 결과적으로 독일의 통상파괴전에 무력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런 인식은 제2차대전에서도 변하지 않았다. 즉 영국과 같은 해양국가는 함대결전에 의한 해상통제권을 확보하고 잠수함 역시도 함대결전용으로 고려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제2차대전시 일본도 함대결전에 의한 미국함대를 격파하고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고자 하였으며 잠수함 역시 함대결전의 보조용 정도로 활용하고자 했다.

이와 반대로 대륙국가인 독일은 제1차대전시 영국 주력함대와 결전을 되도록 회피하고 기습과 야간작전에 주안을 두었다. 우연에 의한 함대결전에서도 공세적이기보다는 수세적으로 임하여 회피하려 하였으며 이후 작전에서는 현존함대전략을 고수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제2차대전에서 독일은 제한적인 함대결전의지도 버리고 수상함정과 잠수함을 모두 이용한 통상파괴전에 주력하여 영국과 연합국의 전쟁의지를 말살하려고 하였다. 그리고 이런 효과는 지대하여 영국의 경우 연합국의 지원이 없었더라면 전쟁은 그렇게 낙관적이지 못했을 것이다. 독일의 통상파괴전은 태평양에서의 미국의 표준적인 모델이 되었으며, 해양국가인 일본의 해상교통로를 적극적으로 파괴하려는 미국의 해양전략으로 자리잡았다.

대륙국가의 소극적인 전략은 아르헨티나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그러나 포클랜드전에서 아르헨티나는 현존함대전략을 고수하면서도 적극적인 해양거부를 실시하지 않은 것이 특징이라 하겠다.

한국은 다면 해양적 위치인 반도국가로서 해양으로의 접근성이 좋고 대륙의

심장지역과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으며, 지리학적으로 내측초생달지역에 속하고 있다. 그리고 해외자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바다를 이용한 무역에 국가의 사활을 걸고 있는 해양국가로서 성격이 강한 국가이다. 특히 이는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더욱 국가의 정책을 해양 지향적으로 만들고 있다. 그리고 만약 한반도가 통일이 된다면 대륙의 이(利)와 해양의 이(利)를 동시에 가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한반도 군사사상은 대륙국가적으로 발전해왔는데 이는 육지국경을 두고 잦은 지상전의 영향 때문이었다. 매우 제한적이지만 해양적인 군사사상을 가졌던 때가 국운 융성기였음을 상기할 때 군사사상을 한 방향(Single Line)으로 고수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적성국가의 특성에 따라 군사사상을 달리 발전시켜야 함은 두말할 나위 없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반도국가는 대륙국가와 육지를 통하여 접경상태에 있고 해양국가와 대양으로 연결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해양과 지상 양면의 위협을 관리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즉, 상대적인 관점에서 대륙국가의 위협인 해양거부기도를 반도국인 한국은 해양통제 입장에서 관리할 수 있어야 하며, 반대로 해양국의 위협인 해양통제 기도를 한국은 해양거부 차원에서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잠수함은 재래식 잠수함(독일제 209급)으로, 그 작전 능력과 운용측면에서 해상통제용으로 사용되기에는 한계가 있다. 즉 사례연구에서도 보았듯이 함대결전과 같은 임무를 재래식 잠수함에 부과하게 되면 그 성공률이 매우 저조하게 된다. 앞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잠수함은 방어목적으로 사용될 때 그 진가를 발휘하므로, 해상통제가 달성된 후에 잠수함을 적국의 해상교통로를 공격하는 통상파괴전과 같은 용도로 이용하는 것이 가장 적합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반도국가인 한국은 해양국가의 해양전략과 대륙국가의 해양전략

을 동시에 수용해야 하며 적대국에 따라 해양전략을 상대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그리고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재래식 잠수함은 능력상 한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해상통제가 달성된 후 해양거부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參考文獻

1. 단행본

<국문>

- 강영오. 『한반도의 해상전략론』. 서울 : 병학사, 1988.
- _____. 『해양전략론』. 서울 : 해양전략연구소, 1998.
- 공군본부. 『포클랜드전의 실태 분석』. 서울 : 공군본부, 1984.
- 관세청. 『그림으로 보는 '99무역통계』. 서울 : 관세청, 2000.
- 국대원. 『포클랜드전쟁의 교훈과 한국안보』. 서울 : 국방대학원, 1990.
- 국방대학교. 『안보관계용어집』. 서울 : 국방대학교, 2000.
- 김종기. 『해양전략개론』. 대전 : 해군본부, 1995.
- 김종민. 『전쟁과 해양전략』. 서울 : 이성과 현실사, 1992.
- 김현기. 『현대해양전략사상가』. 서울 : 해양전략연구소, 1998.
- 우학선 편저. 『태평양전쟁』. 서울 : 명지출판사, 1982.
- 이종학외 3명. 『종합세계전사』. 서울 : 박영사, 1978.
- 임덕순. 『정치지리학원리』. 서울 : 법문사, 1989.
- 육군본부. 『대륙국가와 해양국가의 전략』. 서울 : 육군본부, 1977.
- 전웅 편역. 『지정학과 해양세력 이론』. 서울 : 해양전략연구소, 1999.
- 홍종혁. 『정치지리학』. 서울 : 공화출판사, 1968.
- 해군대학. 『해군력』. 진해 : 해군대학, 1988.
- _____. 『세계해전사』. 대전 : 해군대학, 1998.
- 해군본부. 『잠수함 회고와 전망』. 서울 : 해군본부, 1985.
- _____. 『해군기본교리』. 대전 : 해군본부, 2001.

<영문>

- Andidora, Ronald. *Iron Admiral : Naval Leadership in Twentieth Century*. Westport Connecticut : Greenwood Publishing Group, 2000.
- Brodie, Bernard and Fawn M. *From Crossbow to H-Bomb*. Bloomington, Indiana : Indiana University Press, 1973.
- Chant, Christopher. *The History of Warship*. Edison New Jersey : Chartwell Books, Inc., 2000.
- Keegan, John. *The Price of Admiralty : The Evolution of Naval Warfare*. New York: Penguin Book, 1988.
- Gordon, G. A. H. "The British Navy, 1918-1945." Keith Neilson and Elizabeth Jane Errington. *Navies and Global Defense*. Westport, Connecticut : Fraeger, 1995.
- Potter, E. B. and Nimitz eds., *Sea Power : A Naval History*. New Jersey : Princetice-Hall, Inc., 1960.
- Sprout, Margaret Tuttle. "Mahan: Evangelist of Sea Power," Edward Mead Earl, *Makers of Modern Strategy*.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3.
- Reynolds, Ckark G. *Command of the Sea*. Malabar, Florida : Robert E. Krieger Publishing Company, INC., 1974.
- Ross, Steve T. *American War Plan*. New York : Garland Publishing, INC., 1992.
- Simpson III, Mithell ed., *War, Stratege, and Maritime Power*. New Brunswick, N.J : Rutgers University Press, 1977.
- Till, Geoffery. *Modern Sea Power*. London: Brassey's Defense Pub.,

1987.

<번역물>

Gorshkov, S. G. *The Sea Power of the State*, 국대원 역. 『국가의 해양력(1987)』. 서울 : 국방대학원, 1987.

Gray, Colin S., *The Leverage of Sea Power : The Strategic Advantage of Navies in War*, 임인수, 정호섭 공역. 『역사를 전환시킨 해양력』. 서울 : 해양전략연구소, 1999.

Mahan, A. T. *Naval Warfare*, 김득주의 공역. 『해군전략론』. 서울 : 동원사, 1974.

Murray, William and Millett, Allan Reed *Military Innovation in the Interwar Period*, 허남성, 권영근 공역. 『제1,2차세계대전 사이의 군사 혁신(상)』. 서울 : 국방대학교, 2002.

Mike Lawrence Smith, *The Changing Face of Maritime Power*, 이원우의 2명 공역. 「해양력의 변화국면」. 대전 : 해군대학, 2000.

Roskill, S. W., *The Strategy of Sea Power*, 이충희, 권복연 공역. 「해양전략」. 서울 : 연경문화사, 1979.

2. 논문

강영오, 오관신, “통일한국의 해군력.” 1991년도 위촉연구과제 보고서. 대전 : 해군본부, 1991.

김종화, “해양전략 이론과 잠수함전 운용에 관한 연구.” 서울 : 석사학위 논문, 국방대학원, 1989.

양용모, “중심개념을 통한 잠수함전 분석.” 서울 : 석사학위 논문, 국방대학교, 2001.

이강혁, “중급국가의 해군력으로서 잠수함.” 서울 : 석사학위 논문, 국방대학교, 2000.

임인수, “해양전략의 기본개념.” 「해양전략」 제84호(대전: 해군대학, 1994).

정호섭, “太平洋戰爭時 日本海軍의 失錯.” 「해양전략」 제106호 (2000.3), 대전 : 해군대학, 2001.

황규원, “대륙국가와 해양국가의 해양전략 비교와 한반도 적용.” 석사학위논문, 국방대학원, 1990.

3. 인터넷자료

www.nwc.navy.mil/press/Review/1999/Autumn/art3-a99.htm.

www.nwc.navy.mil/press/review/1988/winter/art10w98.htm.